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지방도시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의  
전국적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 혜 립

지방도시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의  
전국적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광 중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 혜 림

유혜림의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원장 김경민



부위원장 전상인



위원 김광중



## 국문초록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전략이 전국의 지방도시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전국 18개 지방도시의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전략의 전국적인 특성과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도심 지역 내에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서구의 도시와 비교하여 한국의 지방도시 들이 어느 정도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경우 도시재생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최근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개발에서는 지역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이 추진될 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 및 집행의 역량의 중요성과 정부주도의 하향적 접근방식 보다는 상향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도시로 나아가기위한 지방도시의 활성화 사업이 이와 같은 관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긍정적인 결과로까지 도출하였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지역이 지닌 유·무형의 역사가로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을 각 시·군의 사업지침자료와 내부보고자료, 지역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언론보도내용 등을 바탕으로 활용된 역사문화자원, 사업 계획의 내용, 사업비 규모와 마련, 사업의 주체·형식·내용을 통해 특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성공한 지역(대구, 전주)과 함께 문제점이 나타나는 지역(홍성)의 지역상인·주민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주체를 중심으로 수행한 인터뷰를 지방도시의 성격과 역사자원성, 사업추진방식, 계획/시공의 질, 사업 후 운영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인터뷰 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서구의 풍부한 역사자원과는 다르게 점적으로 산재되어있는 적은 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가로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자원도 잠재성을 가지고 커뮤니티개발에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러한 지역자원은 유·무형의 자원이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사업에 실행과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인적자원과 공공·주민의 역할과 참여는 중요하게 나타난다. 사업의 진행이 하향적 사업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역의 인적자원이 정리되어 활용되어질 때 긍정적 효과가 도출되었으며 지역 주민이 계획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공공은 주민참여의 유도과 협력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통한 사업비 마련에 역할을 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결과가 지역 경제와 활성화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가로환경개선 효과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지방도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특성과 추출된 요소들은 추후 역사문화를 활용한 거리조성사업에서 계획 및 디자인 등에 좋은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역사문화가로조성사업이 실제 어떤 과정과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밝혀낸 것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주체와 지역상인·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도시재생, 근린재생, 지역자산활용, 역사문화자원, 역사문화거리

◆ 학 번 : 2012-23798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b>1</b>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b>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b> .....	<b>6</b>
제 1 절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도시재생 .....	6
1) 역사문화의 개념 .....	6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수법 .....	7
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	10
제 2 절 선행연구의 고찰 .....	13
1)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원칙 .....	13
2) 역사문화를 통한 가로재생에 관한 연구 .....	16
제 3 절 분석의 틀 .....	18
<b>제 3 장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특성 분석</b> .....	<b>20</b>
제 1 절 조사대상의 선정과 분석방법 .....	20
제 2 절 각 사업 별 조사 분석 .....	21
1) 인천 중구 개항기 역사문화거리 .....	21
2) 대구 종로/진골목 .....	28
3)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	39
4) 군산 근대역사경관로 .....	45
5) 김해 가야의 거리 .....	52
6) 홍성 역사문화거리 .....	56
7) 전주 한옥마을 은행로/태조로 .....	62

8) 공주 국고개 문화의 거리 .....	71
제 3 절 사업 특성 분석의 내용 .....	74
1) 활용된 역사문화자원 .....	74
2)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비 마련과 규모 .....	78
3) 사업의 주체와 추진방식 .....	79
4) 계획의 형식과 내용 분석 .....	81
제 4 절 소결 .....	84
<b>제 4 장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요인분석 .....</b>	<b>87</b>
제 1 절 인터뷰 대상지역의 선정과 조사대상 .....	87
1) 인터뷰 대상지역의 선정 .....	87
2) 조사의 대상과 내용 .....	91
제 2 절 인터뷰 분석 .....	94
1) 사업의 성공여부 .....	94
2) 성공요인 분석 .....	96
(1) 지방도시의 성격과 역사자원성 .....	96
(2) 사업추진방식 .....	104
(3) 사업 계획·시공의 질 .....	113
(4) 사업 후 운영방식 .....	117
제 3 절 소결 .....	121
<b>제 5 장 결론 .....</b>	<b>124</b>
<b>참고문헌 .....</b>	<b>127</b>
<b>Abstract .....</b>	<b>133</b>

## 표 목 차

[표 1] 지방도시의 사업단계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	3
[표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수법 .....	8
[표 3]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원칙 .....	15
[표 4] 가로조성사업에 대한 분석의 틀 .....	18
[표 5]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의 틀 .....	19
[표 6]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자원(인천) .....	22
[표 7] 인천 중구 개항기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내용 .....	26
[표 8]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자원(대구 중구) .....	29
[표 9] 근대문화벨트 종합추진계획 .....	32
[표 10] 대구 종로/진골목 가로환경개선사업 내용 .....	36
[표 11]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자원(포항 구룡포) .....	39
[표 12]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일본일 가옥 거리) 조성사업 내용 .....	43
[표 13]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자원(군산) .....	46
[표 14] 군산 근대역사경관로 조성사업 내용 .....	50
[표 15]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자원(김해) .....	52
[표 16] 김해 가야의 거리 조성사업 내용 .....	55
[표 17]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자원(홍성) .....	56
[표 18] 홍성 역사문화거리조성 사업 내용 .....	60
[표 19]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자원(전주 한옥 마을) .....	62



[표 20]	년도 별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 수 .....	67
[표 21]	전주 은행로/태조로 가로경관정비사업 내용 .....	69
[표 22]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자원(공주 국고개) .....	71
[표 23]	공주 국고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내용 .....	73
[표 24]	활용된 역사자원의 다른 지역분류 .....	74
[표 25]	지역별 인근 역사자원의 수 .....	76
[표 26]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내용 .....	77
[표 27]	지역별 사업비 지원 내역과 조달방법 .....	79
[표 28]	사업형식의 분류 .....	81
[표 29]	사업내용의 정리 .....	82
[표 30]	지역별 조성된 역사문화거리의 길이 .....	83
[표 31]	년도 별 대구 근대골목투어 투어객 수 .....	90
[표 32]	심층 인터뷰 참여자 구성내용 .....	92
[표 33]	성공요인 분석 내용 .....	122

## 그림 목 차

[그림 1] 역사문화가로 조성을 위한 구상 .....	24
[그림 2] 인천 중구 개항기 역사문화거리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27
[그림 3] 대구 종로/진골목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38
[그림 4]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44
[그림 5] 군산 근대역사경관로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51
[그림 6] 김해 가야의 거리 배치도 .....	54
[그림 7] 도로 방치 및 주차장으로의 변질 .....	59
[그림 8] 홍성 역사문화거리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61
[그림 9]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 수 변화 추이 .....	67
[그림 10] 2005년 은행로 확장공사 전 모습 .....	68
[그림 11] 2013년 은행로 공사 후 모습 .....	68
[그림 12] 은행로/태조로의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70
[그림 13] 공주 국고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종합계획도 .....	72
[그림 14] 공주 국고개 문화의 거리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73
[그림 15] 대구 근대골목투어 투어객 수 변화 추이 .....	90
[그림 16] 초기 아카이브 작업내용 .....	97
[그림 17] 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 활동내용 .....	120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많은 도시의 중심부가 다양한 이유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도시의 경우, 외곽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교외화 현상, 구시가지 건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미비, 지역의 산업 경쟁력 상실 등에 따라 도시 중심부가 쇠퇴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도시재생사업단, 2012). 이러한 배경으로 많은 지방도시에서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중 특히 도시중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가로 환경을 활성화시키고 장소 마케팅을 시도하는 사업이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오래된 건축물과 가로는 그 지역의 경제, 문화, 생활의 주요한 공간이며 재생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러한 사업에 작용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도시재생의 움직임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의 도시들에서 이미 활발히 추진되어오던 것으로 도시가 가진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으로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요한 재생 방안이 활용되어오고 있다(최강림·이승환, 2009). 이들 국가에서는 역사보존을 통해 도심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관광효과를 통해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도시재생사업단, 2012). 이러한 재생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 역사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도시환경에 활력을 부여하고 도시경관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개발의 이론에서도 지역자산(local asset)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쇠퇴한 도시와 커뮤니티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자원 동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진 지역의 자산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재생방식(asset-based regeneration)이 유효한 전략으로서 논의되어 왔다(Gary Paul Green, A. H., 2011). 그리고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 및 집행의 역량(capacity)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Temali, M., 2007). 특히 지역의 자산을 발굴, 활용하는 지역사회단위의 근린재생(community regeneration)에 있어 정부주도의 하향적 접근방식 보다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조직하고 연대하여 사업을 발의하고 계획수립 및 집행에 참여하는 상향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John P. Kretzmann, J. L. M., 1993).

그러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상향적 재생접근을 옹호하는 서구이론이 한국의 지방도시 재생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도시재생의 경우, 자원의 양과 질, 그리고 이에 대한 가치부여와 재생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은 국가와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된 논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서구 도시와 비교하여 도심부의 역사문화 유산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한국 도시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이 도시재생의 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계획 및 집행의 재정적 특성에 비추어 어떠한 접근방식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표 1 지방도시의 사업단계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구 분	사업지		사업명
	도	시군	
조성완료	경기도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개항기 역사문화거리조성 사업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공주시	공주 국고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구 종로/진골목 가로환경개선사업
		포항시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일본인 가옥 거리) 조성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 가야의 거리 조성사업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한옥마을 은행로/태조로 가로경관정비사업
		군산시	군산 근대 역사경관로 조성사업
조성 중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행궁동 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충청남도	논산시	충남 논산 강경 근대 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 부민동 일대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부산 구포역 인근 '만세운동길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 돌레길 조성사업
착공예정/ 계획안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전선 없는 역사문화거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산 방어진 글로벌 건축문화거리 조성사업
		창원시	진해 균형역사길 조성사업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 영산포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목포시	목포 근대역사문화 타운 내 역사문화 길 조성사업

현재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 노력은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중 8개 지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개 도시가 조성 중에 있다. 착공예정이거나 계획수립 중인 곳도 5개 도시에 이른다.

그러나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도시재생전략으로서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접근방식과 그것의 도시재생효과에 대한 논의는 제한되어 있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이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사업으

로 인식되기 때문이고, 외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성공 사례 위주로 소개가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2014년 현재까지의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분석하여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전략으로서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완료된 사업 중에서는 성공 혹은 실패라는 평가받고 사례를 선정하여 성공/실패의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하였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14년 현재 사업완료 또는 진행 중인 전국 18개 도시 역사문화를 활용한 거리조성사업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으며, 최근의 도심부 재생의 전략으로 추진된 것에 한정하여 그 목적이 도심부 재생을 표방하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추진된 사업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가로조성이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 전체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들 중 사업이 완료된 8개 도시에 대해서 고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8개 도시 중 성공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사업지침자료와 내부보고자료, 지역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언론보도내용 등을 바탕으로 2014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완료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전반을 통해 역사자원의 내용과 활용, 사업비 마련, 계획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할과 참여적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역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전체적 사업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에 논해지고 있는 역사자원을 활용한 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을 활용하여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공지역과 실패지역을 판단하는 기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부기관에 의해 매 해 선정하는 상과, 선정 이유를 종합하였다. 또 언론에서 보도되어지는 내용 중 사업의 효과가 선구적인 지역, 사람들의 방문이 많아져 관광효과 및 수익이 증가한다는 내용 등 ‘성공’으로 유추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였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판단하여 참고하였다. 이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성공 또는 실패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심층 인터뷰를 2014년 7월과 8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고 성공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전국적 특성을 파악하고 성공지역에서 나타나는 요인을 통해 추후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도시에서 경쟁력 있는 역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

### 제 1 절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도시재생

#### 1) 역사문화의 개념

역사문화란 역사와 문화의 합성어로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의적으로 해석되지만 공통점은 옛 사람들이 만들어 낸 가치적 자산<sup>1)</sup>으로서 역사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은 역사성을 지닐 정도의 발생연수가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며, 대상자원의 자체적인 심미성이 있거나 맥락적으로 경관성이나 고유의 도시조직을 지닌 경우와 역사적 사건 또는 개인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정의한다(나춘선 외, 2012). 역사문화자원은 물질적, 정신적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지역이 가진 과거의 사전과 장소, 생활 속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문화를 품고 있는 환경에 대해 광의적, 협의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의적으로 역사의 결과로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모든 환경의 총체라 정의한다. 협의적으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협의적 의미의 역사문화환경은 물리적인 형태와 문화적인 형태가 분명하게 연관된 하나의 지역 또는 경관이

---

1) 자산(資産, asset)은 경제적 혹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형·무형의 가치가 있는 재산, 경제적 권리를 가지는 가치를 지닌 구체적 실체를 의미한다. 유산(遺産, heritage)이란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을 말한다. 자원(資源, resources)은 자산과 유산을 포함하면서 인간의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물적 자료 및 노동력, 기술 등을 통틀어 이르는 폭 넓은 의미를 가졌다.



며, 구성 요소들은 형태와 기능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로서 다른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시간이라는 변화요소에 의해 발전, 소멸, 대체의 과정을 밟는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역사 환경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며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에도 계속될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의 복합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강동진, 1999) 즉, 역사문화환경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쌓여져 온 축적물 전체로 시간을 담고 있으면서 미래로 그 가치를 전달해야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축적되어진 여러 형태의 자산 그자체가 환경을 이루는 주체이며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보존·보전하여 후세에 이어져야하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수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전과 보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Briggs(1975), Faulkner(1978), Hubbard(1993), Yeomans(1994) 등은 보전 철학과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보전에 대한 개념을 현존하는 재료들의 교체를 통해, 현대적인 서비스와 장치들을 도입하여 편안하고 현 조건의 개선과 건물의 현대와 계획에 대한 변경을 동반한 용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강동진, 1999). 일반적으로 역사적 환경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보전(conservation)’을 사용하며, 미국은 ‘보존(preservation)’과 ‘보전’을 혼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존은 단일건물, 즉 건축물 및 랜드 마크의 보호에 사용하는 개념이며, 보전은 근린계획 차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역사적 환경에 적용하는 용어 사용에 차이를 보인다.

보전과 보존 외에 역사문화에 대한 접근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양에서는 보존(conservation), 보존(preservation), 회복(restoration), 복원(reconstruction)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보존(保存), 수리(修理), 수복(修復), 복원(復元)’ 등을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수복(修復), 수선(修繕) 등의 개념으로 쓰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보존, 수리보수, 복원, 영선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안인향, 2009). 다음 표 2는 역사문화자원이 활용되어질 때 사용되는 수법의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수법

출처 : 김동식(2002): 11, Carmona et al.(2010) 참고.

용어	의미
보존 (保存, Preservation)	역사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을 대상물이 인수되었을 때와 같은 물리적 조건으로 유지하며 건물의 미적인 실체에서 아무것도 첨가되거나 감하여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원상태의 고유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은 물론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전 (保全, Conservation)	환경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어휘로서 강, 숲, 토양, 공기 바다 등 자연환경의 재생 및 유지에 대하여 주로 쓰이는 말이지만 건물 및 도시를 포함하는 인간의 생태학적인 콘텍스트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미국 보존 과학 자문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을 가능한 한 불변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문화유산의 환경을 조절하고 문화유산의 구조를 관리함으로써 열화나 손상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 정의하고 있다.
복원 (復元, Restoration)	건물을 원래의 상세 및 재료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어떤 특정한 시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복원 작업은 역사학자, 고고학자, 건축가 등의 기술이 축적된 전문가들에 의해 건물을 원래 형태적 발전단계의 물리적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며, 파괴된 것을 대체하고 부가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제는 건물을 어느 기기의 상태로 복원하는 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연관사항이나 미적인 일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개조 (改造, Renovation/rehabilitation)	오래된 건물을 다시 쓸 수 있게 고치는 것으로 엄격한 복원보다는 역사적인 정확성의 문제서 볼 때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이 방법은 생활양식 및 주거, 공업, 업무 등의 패턴이 변화하며 그렇기에 건물은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의 것을 보존하고 미래에도 적합하게 해야 하는 역사적 보존의 모순된 목표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다르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전용 (轉用, Adaptive /Reuse)	보존의 정도가 보다 미약한 방법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서도 구조는 쓸만한 건물의 경우, 원래의 형태와 성격을 같이 보존하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다른 용도를 주어 내부는 행위를 수용하고 외부는 도시조직이나 경관의 성격에 기여하게 한다.
재조립 (再조립, Reconstruction)	근본적인 부분에까지 들어가는 작업으로서 원래의 대지나 다른 대지에서 부분 부분을 다시 조립해야만 건물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대지에서 재조립하는 것은 보통 지진, 전쟁 등 재난을 당했을 때가 많고 새로운 재지에서는 그대로 옮기기는 너무 클 때 재조립을 하게 된다.
모사 (模寫 imitation)	현존하는 건물들 간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 필요할 때, 또 다른 개념으로서 모사가 이용된다. 역사적 성격을 띤 지역이 독특한 성격을 지닐 때나, 또한 보존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전 (移轉 Relocation)	보존의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건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 또 보존해야 할 건물이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부득이 현재의 장소를 일어야 할 경우에 건물만이라도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재축 (再築 Reconstruction)	원래의 대지에서 이미 없어진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지어진 건물은 원래 구조물에 대한 대응물의 역할을 하고 그 형태는 고고학적 증거와 문서상의 증거에 의해서 확립된다.
복제 (複製 Replication)	도시 규모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탁월할 때가 있다.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현존하는 예술품의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축의 경우는 원형으로서 전에 서 있던 건물을 정확히 모사하여 새로이 짓는 것이다. 즉 원래의 건물과 모사된 건물이 같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원 건물의 대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수리 (修理)	닿아지고 훼손된 문화재를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조사·실측·설계하여 옛 기법을 따라서 수선·복원하고 조경 등 주위환경을 정비하여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행위를 보통 보수·정비라고 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수리(修理)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동진(1999)은 보존에 대해 하나의 건물이나 군집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원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미래를 위해 선택적으로 보호로 정의한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은 모두 미래의 환경을 유지, 회복, 개선 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내포하지만 단어의 사용에서는 개발과 보존은 차이를 가진 개념으로 보고 있다. 사적이나 문화재 같은 역사적 환경에 있어 개발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보존이란 무의미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존의 대상으로서의 역사적 환경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함께 미래의 문화 창조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우리세대에 개발된 환경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있어 단순한 보존만의 강요보다 다양한 유형을 인식하고 다방면의 활용을 고려함이 필요하다. 역사문화환경을 이어나가는데 주민이나 행정의 끊임없는 투자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면도 어려운 작업이다.(정경호, 1993)

### 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

현재 도시쇠퇴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도심은 대체로 그 도시의 발상지로서 도시가 지나온 시간 속의 많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즉, 인구 및 각종 기능의 집적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문화와 전통 등의 역사적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계기석·김형진, 2003). 이러한 특성은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Brigitte Colin(2007)은 이러한 역사성을 지닌 도심의 가치에 대해서 그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생성하며, 지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 종교, 사회·문화 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도심의 공간 및 경제구조, 건축물, 역사적 기념물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구도심은 이러한 도시의 특색이 되었으며 그 자체가 ‘내재적 문화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대 도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sup>2)</sup>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중심시가지를 재생하고 이를 도시재생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에서의 역사문화자원은 역사적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또 역사문화자원은 지역에 특징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재생 노력을 시작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즉, 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역사문화자원은 근린재생의 촉진제로써 작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문화를 강화시키고 근린에서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강화시킨다. 또 자연자원과 연계한 지역민의 어메니티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문화재청, 2008).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환경 요소 중 역사문화환경을 보전·재생하여 도시 환경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작업은 도시를 보다 의미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이찬·임수현·강홍빈, 2007).

역사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의 문화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

2) Brigitte Colin(2007), “UNESCO Activities on Balanced Urban Revitalization between Social Cohesion and Heritage Conservation” UNESCO공간심포지엄 자료 ; 안인향(2009),서울시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3 재인용.

를 구성하는 많은 환경요소 중 문화유산을 보존 또는 보전, 재생해야 하며 도시환경에 대한 다양성을 부여하고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지역의 생활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한 정체성 확보는 주민의 자긍심을 형성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장소 마케팅으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중 특히 해외에서 나타나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중심시가지재생에는 도시 속에서 중심가로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며, 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로 재생은 관광객에게 도시방문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매력적인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적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도시 가로 재생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활용수단으로서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경관형성,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적정용도 도입과 산업화 및 가로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브랜드화와 마케팅 도입,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커뮤니티 형성과 주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박철휘, 2011).

역사문화거리조성은 일종의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등 거리의 제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나 사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홍인옥, 2013). 이러한 거리조성사업은 가로환경의 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물리적환경의 개선과 디자인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파사드와 도로가 포함된다.

## 제 2 절 선행 연구의 고찰

### 1)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원칙

앞서 해외에서 역사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왔다는 것을 언급한바 있으며 그 중 홍만영(2009)에서 역사·문화 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sup>3)</sup>의 사례를 소개하며 여기에 적용되었던 기본 원칙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탈공업화 현상이 진행되었고 또한 사업구조의 변화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던 구 공업지역으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 주정부에서 역사적 도심 재생계획(Die erhaltende Erneuerung der Historischen Stadtkern in Nordrhein Westfalen)을 중요한 도시 정책과제로 인식하였다. 1980년대 초반 거주인구의 감소와 경제 성장 하락 등은 도시개발정책의 방향을 변화시켰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중의 도시 개발·주거·교통부장관은 광범위한 육성기본방침으로 도시개발계획 초기부터 지원에 나섰다. 1985년 2월 역사적 도심의 보존과 재생에 관한 기본방침이 처음으로 공고되고 그 내용은 기본 골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수백년간의 도시계획적 유산을 보전하고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보존·보호 되어야한다. (지속가능성/역사보존의식)

둘째, 도시 역사성이 앞으로도 계속 읽혀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한다.(지속가능성)

셋째, 역사성이 서려있는 가로와 확장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교통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도로 구시가지에 적합하며, 우선적으로 가족을 위한 주거용도로 권장하고 있다.

---

3) '역사문화 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이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동시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 및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행위로서 보존의 대상이 단순히 문화재로서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지형, 옛 도성의 경관, 옛 도시 형태와 패턴 등의 물적 요소, 또 다른 다양한 여러 물적 요소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도시경관, 장소적 이미지, 전통 산업과 문화활동 등의 비 물적요소가 함께 보전되는 도시재생을 말한다. 홍만영(2009), 도시재생에 있어서 역사문화환경의 활용방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외국사레처럼 민현석(2010)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 가꾸기 사업이 역사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전과 스토리를 담는 것 아닌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서울 4대문을 중심으로 거리조성을 할 때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서울의 브랜드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미적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역사유적에 대한 보전 노력이 현재는 부족하며 앞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역사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옛길 가꾸기를 위한 전략과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칙은 서울 도심 4대문 안의 옛길 가꾸기를 즉 거리환경조성계획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10가지로 다음과 같다.

- 첫째, 옛길은 땅위에 만들어진 소통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한 요소
- 둘째, 옛길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
- 셋째,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옛길 가꾸기
- 넷째, 옛길에 담긴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옛길의 문화를 창조
- 다섯째,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행정지원에 의한 옛길 가꾸기 시행
- 여섯째, 역사적 건물뿐만 아니라 내사산과 청계천 등 자연요소의 복원을 통한 옛길의 역사적 품취 보전
- 일곱째, 옛길의 역사적 품취 보전과 형성을 위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 여덟째, 한옥밀집주거지내부의 옛길의 경우 소방방재 대책 마련 및 주민교육 실시
- 아홉째, 옛길의 역사적 정취를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보행환경 확보
- 열째, 철저한 역사고증 및 자료 수집을 토대로 옛길 가꾸기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필요

이와 같은 원칙아래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만의 이미지 브랜드화와 활성화를 위한 거리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원에서 그 범위를 넓혀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이왕건 외(2011)에서도 참고할만한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때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부족함과 지역자산의 활용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



실이 기존 사업에서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제시되어졌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

둘째, 해당지역이 가진 특성을 가진 어떤 것이든 지역자산이 됨

셋째, 지역자산의 발굴 및 활용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두어야 함

넷째, 지역자산의 특성에 따라 활용의 우선순위 차이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원칙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재생에서 지역이 가진 고유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역사자원에 대한 조사/분석, 나아가 보전되어야 함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함이 보인다. 이러한 원칙들은 공통적으로 역사보존에 대한 수준 높은 의식과 계획에서 디자인의 질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으며 후세에 물려주고 알릴 수 있는 지속가능성 또한 중요한 원칙으로 알리고 있다.

또 무엇보다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가 적극적인 단계가 되도록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적 움직임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뿐만 아닌 최근 다양한 도시재생에서 추구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표 3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원칙

원칙	세부내용
높은 수준의 디자인 퀄리티	옛길의 역사적 정취를 안정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보행 환경 확보 / 역사적 풍취의 보전과 형성을 위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진정성을 지키고 수준 높은 역사보존원칙	역사건조물 및 자연요소의 복원을 통한 옛길의 역사적 풍취보전, 철저한 역사고증 및 자료수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변 맥락과의 연결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가로환경조성, 주위 공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반영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그램	storytelling,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문화 창조
참여적 과정 (지역활동주체와 주민)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행정지원에 의한 옛길 가꾸기 시행 보존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민교육의 실시
공공의 리더십	장기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추진
정보·가치의 전달	가로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

## 2) 역사문화를 통한 가로재생에 관한 연구

기존에 이루어진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가로재생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역사문화유산의 활용한 가로조성 계획안 제시, 두 번째 도시 가로재생 방향,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례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가로조성계획 연구로 전강은 외(2012)는 강화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 조성계획에 있어 네트워크 형성, 스토리텔링, 주민공감대 형성계획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명재(2012)는 대구 구도심에 위치한 향촌동의 문화사를 스토리텔링으로 역사문화거리에 구현하여 재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도시 가로재생연구로 박천보(2009)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물리환경, 경영측면을 강조해야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례연구로 최강림 외(2009)는 해외사례를 통해 인천시 구도심 역사문화 환경 활용사업인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어 지원체계 구축, 기존 건물과 조화된 복원, 파트너십 형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개선방향을 제한하였으며, 이민호 외(2013)는 일본 역사문화지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가로조성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거리조성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과 활성화요인에 관한 것들로서, 역사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당위론적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적인 접근이 강하며 규범적으로 물리적 개선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당위론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한국의 도시재생에서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국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역사문화자원이 양과 질에 있어서 서구의 도시와 차이가 있는 한국의 지방도시에 있어서 활용된 역사문화자원의 특성, 그것이 활용된 방식, 그리고 그것의 도시재생에 대한 기여의 가능성을 확인해 본다. 같은 의도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요인에 대해 분석틀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성공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 제 3 절 분석의 틀

연구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칙들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완료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조사 분석에 대해서 활용된 역사문화자원,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비 마련과 그 규모, 사업의 주체와 추진방식, 거리조성에 대한 계획의 형식과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역사자원의 종류와 활용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이 수행되어질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자원의 종류와 수를 활용하여 가로를 재생을 하려 하는지를 살펴본다. 또 사업비의 내용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통하였으며 그 지원의 양은 어떠한지를 본다. 실제 지역에서 이루어진 계획의 내용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실제 거리 환경의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표 4 가로조성사업에 대한 분석의 틀

구분	세부내용
활용된 역사문화자원	활용된 자원의 시대적 성격, 자원의 수, 자원의 활용내용
사업비 마련과 규모	사업비 지원 내역, 조달방법
사업의 주체와 추진방식	공공과의 협력, 주민참여
계획의 형식과 내용	사업의 형식, 수행된 사업계획의 내용, 조성된 가로 길아폭

이어서 성공요인의 분석에서는 사업의 조사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의 방문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구분은 지방도시의 성격과 역사자원성, 실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참여적인 모습에 대한 사업추진내용, 사업 계획·시공의 질, 사업 후 운영

표 5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의 틀

구분	세부내용	
지방도시의 성격과 역사자원성	역사자산의 발굴내용, 기존의 지역성의 반영, 자료수집내용,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의 내용, 활용 방안	
사업추진방식	공공의 역할	공공의 리더십, 가로역사적 가치 발굴 및 시민에게 가치를 전달, 주민교육의 실시
	참여적 과정	주민 참여, 시민단체의 참여
사업 계획 시공의 질	역사성이 살아 있는 가로 확장, 보행환경 확보, 적합한 용도로의 계획,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가로환경조성	
사업 후 운영 방식	지속가능성의 확보	

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꼽히는 곳의 지역기반 성향을 듣고 사업과 연관성을 찾으며 지역에 분포된 역사자원을 수집·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적 평가로 이어진 내용을 보려 하였다. 또 사업에서 나타나는 공공의 역할과 지역민의 참여 내용에 대한 인터뷰에서 밝혀지는 사업 추진의 긍정적인 면을 분석하였으며 기본적 가로환경개선에 대한 객관적·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질적인 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이후 성공·실패지역의 현재상황과 추가적인 사업 혹은 움직임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 조성된 역사문화가로거리가 가지는 지속가능성의 확보여부와 이에 이어져 지역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의 여부를 보고자 하였다.

## 제 3 장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특성 분석

### 제 1 절 조사대상의 선정과 분석방법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전체 18개의 사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8개 지역은 사업이 완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바탕에는 지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사자원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자원의 내용을 살펴본다. 또 자원의 분포와 거리조성 내용 및 규모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지역별 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를 유형별 분류를 통해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현재까지 완료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공에서 나온 보도자료, 현지 시·군청의 내부보고자료, 건축 잡지, 기존의 연구내용,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된 8개 지역별로 어떠한 역사자산이 존재하고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 활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사업계획에서의 계획내용과 사업비의 마련의 공통적인 모습, 사업과정에서 보이는 주체와 현재까지의 사업에서 보여지는 참여적과정의 여부와 내용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성격과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하였다.

## 제 2 절 각 사업별 조사 분석

### 1) 인천 중구 개항기 역사문화거리

-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배경과 자원

2002년 인천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6건, 시지정문화재 109건 등 모두 165건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883년 고종 20년 인천의 개항이 이루어진 이래 1930년대까지 건축된 근대 건축물이 중구 구도심 지역, 특히 조계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근대건축물은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유실되고 2001년 중구 일대에서 소실된 근대 건축물은 19개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8년 이후 7개소가 더 추가되었다. 2009년 12월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개발 열풍이 근대건축물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sup>4)</sup>. 건물의 노후문제도 있지만 지역 개발로 인한 건물 손상이 근대유산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아 있는 근대역사건축물과 개항기 역사를 바탕으로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개항기 도시의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중구청과 인천 58은행지점, 인천제일은행지점건물들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중구청 일대는 개항기 시절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왕래가 많았던 지역이다. 인천 개항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외국인 전용 거주지인 조계지는 조계지 돌계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일본의 조계지, 왼쪽은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있는 중국조계지로 나누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에 따라 이 일대에는 시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다양한 근대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경향신문(2009.12.04.), 발길 닿는 곳마다 옛 자취 오롯이...근대 100년 역사 '거대한 박물관' 참고.

표 6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인천)

역사문화자원분류	내용
건축물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등록문화재 제248호)
	구, 일본영사관 (등록문화재 제249호)
	구,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7호)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50호)
	일본제58은행 인천지점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9호)
	구, 일본우체국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7호)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등록문화재 제567호)
유적지	청일조계지경계계단 (인천시 기념물 제51호)
터(흔적)	제물포 연초회사터
	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 1터
	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 2터

▪ 사업내용 및 규모

인천의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은 여타 지역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계획 및 사업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하는가가 구도심 활성화의 관건이 되었다. 그래서 인천시는 2001년 6월 26일 월미관광특구를 지정하여 구도심 대부분을 포함시켜 재생시키고자 하였다. 월미관광특구의 전체 사업 및 계획은 사업 주체, 추진의도, 시기 및 규모 별로 다양하며 그 중 ‘차이나타운 조성’,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가 전체 사업에 포함되었다.

전체 월미관광특구를 위해 총 국비 108.3억원, 시비 239.2억원, 구비 479.6억원, 민자 96.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중 ‘차이나타운 조성’,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역사문화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에 약 34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인천시 보고문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대상지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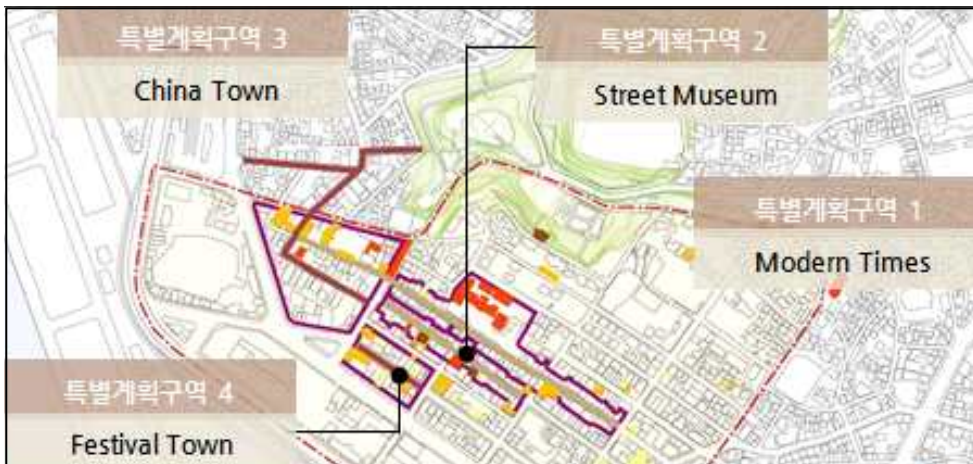
사·문화적 경관 특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재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근대문화유산 주변 지역 및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조화로운 경관을 도모하며, 현실성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과 공공사업계획방향을 수립하여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서는 현상설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현실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위주의 엄격한 보존방식은 폭넓은 대상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전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적인 가치가 뛰어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및 등록 대상으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가치는 떨어지나 주변 경관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훼손의 정도가 적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보전대상으로 결정하며, 보전에 따르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근대 건축물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하여 대상지의 역사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보전 가치가 뛰어난 근대 건축물 중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주변 개발 행위를 제어하였다. 보전대상 건축물 주변의 건축물은 보전대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외관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계획을 통해서 대상지 전체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수시설(공작물, 담장, 계단 등)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성을 가진 가로경관과 역사보존을 이끄는 모습으로 보인다.

지역 활성화 계획 방안에 따르면 계획이 점, 선, 면의 개념에 따라 나누어 진행되었다.(그림 1) 여기서 ‘선’에 해당되는 역사문화의 거리(Modern Times)는 역사적 이미지에 어울리는 가로시설물 설치 및 가로의 결절부(종단부, 중심)에 게이트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개항기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가로 전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가로박물관(Street Museum)은 구 일본제1은행~구 일본제58은행 구간의 기지정문화재 및 신규지정/등록문화재의 외관에 대한 보수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보도 확폭 및 포장, 보전대상 근대건축물 주변 건축물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빛의 축제, 근대사 거리 사진전, 근대영화촬영 축제, 벚꽃 축제 등 가로박물관에서 개최할 수 있는 이벤트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자원에 대해 보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축제계획을 통해 지속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예촌(Festival Town)의 대상 가로 주변에는 적벽돌 창고 군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항구도시 특유의 경관이 형성·유지되도록 계획하였다. 이곳은 대상블록 전체가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공공개발 되었으면 이후 ‘아트플랫폼’으로 명명되어져 활용

그림 1 역사문화가로 조성을 위한 구상  
출처 : 인천시 내부보고자료



되고 있다(진란·김혜정·김현수·김정훈, 2004). 이 역시 계획 이후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계획초기부터 지정하고 이끈 모습으로 보인다.

#### ▪ 사업 후 영향 및 효과

역사문화가로 조성 사업을 통해 근대 건축물의 보전대상 발굴을 통한 경관의 보전, 지속적 유지 관리를 위한 노력,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근대 건축물 보전 및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역사문화경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더욱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육남매 등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에 등장하기도 하면서 다른 곳에선 이상하고 어찌면 흉물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건물들이 이곳에서는 정비되어 가꾸어지면서 이색적인 관광 포인트가 되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역사인식 없이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겉모습만 바꾼 사업으로 비판<sup>5)</sup>하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일본 고베시와 독일 뮌헨시에서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관표창제를 이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도 유도하였다. 경관 보존방안-개항기 건축물 주변지 보존을 위해 도시경관 형성에 공헌 하고 있는 건축·시설물 설계 및 소유자에 대해 표창하는 경관표창제를 도입하였다. 역사·문화 경관에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 할 경우에도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관·랜드 마크·역사문화 부문으로 나눠 기념회장과 상패 등을 수여하였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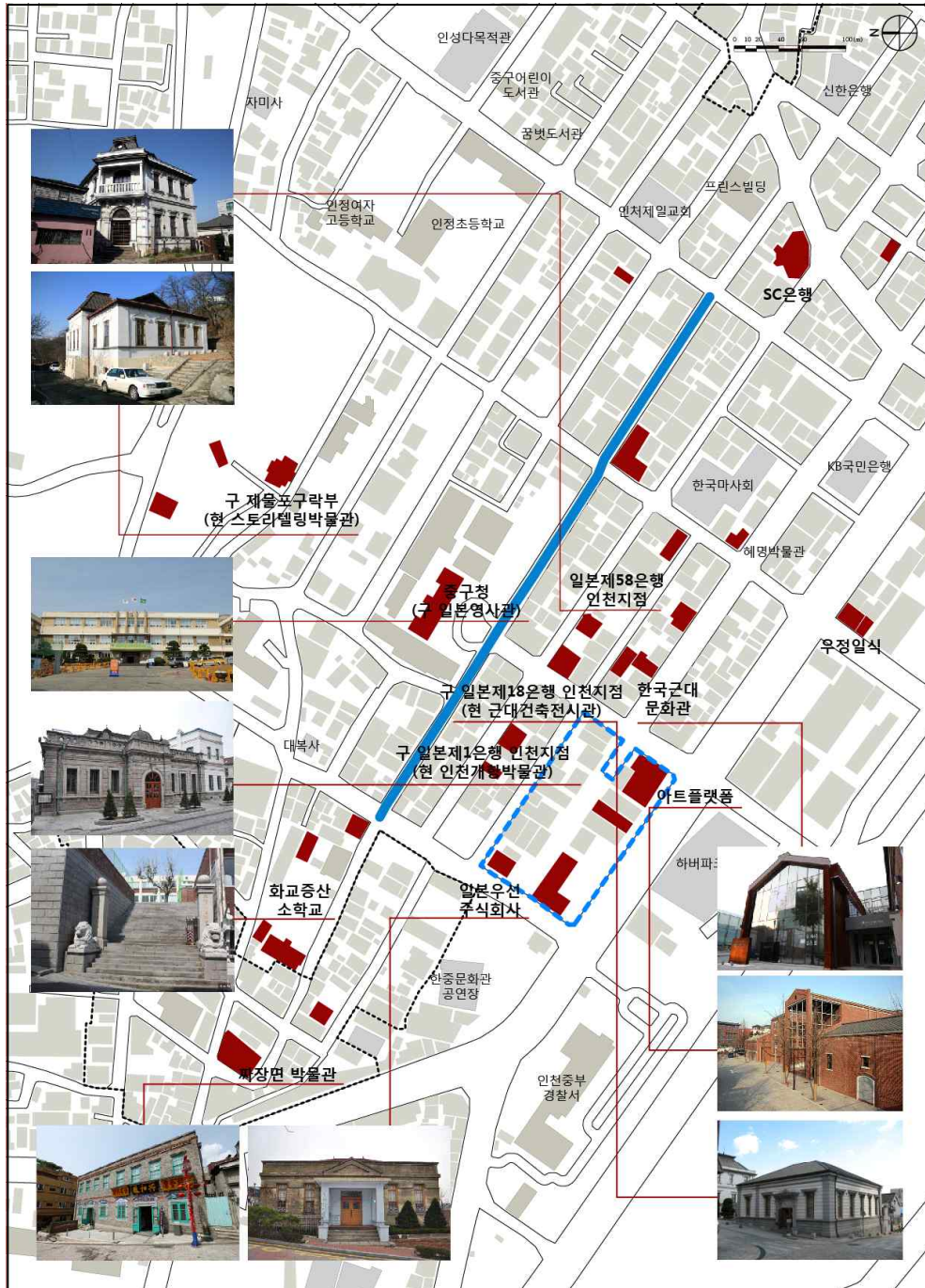
5) 경향신문(2009.05.19), 역사인식 없는 '근대건축물 재현' 참고.

6) 인천일보(2001.07.13.), 인천시 '개항기 건축물 보존방안' 윤곽 참고.

표 7 인천 중구 개항기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인천 개항기 역사문화거리(modern Times)와 구 일본제1은행~구 일본제58은행 구간의 가로 박물관 거리(Street Museum)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일대	
길이	역사문화거리(modern Times) : 약 450m 가로 박물관 거리(Street Museum) : 약 250m	
사업기간	2001-2003	
역사자원	개항기 근대 건축물 중구청(구, 일본영사관) 외 12	
사업내용	근대문화 유산보전계획 수립 - 대상가로 전체를 도시계획 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하여 공공개발, 도로 확폭 및 보전대상 근대건축물 주변에 대한 개선계획까지 수립 주변지역 정비 및 관리 방안 제시 - 현재 남아 있는 화교를 중심으로 개성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과 건물의 리노베이션, 광고판 개선 등의 환경개선	
사업단계	계획단계	근대건축물 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행단계	건물 정비 통해 미술문화 공간 건립 근대건축물보전을 위한 개·보수 작업 구 일본제1은행~구 일본제58은행 구간 보도 확폭 및 포장
	사업 후	빛의 축제, 근대사 거리 사진전, 근대영화촬영 축제, 벚꽃 축제 등 이벤트 계획 수립 및 진행
사업비	총 사업비	약 34억원
	사업비 조달방법	전체 월미관광특구 사업 중의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 일환으로 국비/시비/구비/민자 투입(부지매입비 15억9천만원, 건축개발비 18억6천만원 등)
참여주체	행정	인천시/인천 중구청 - 주도적 사업진행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 문화재 발굴 및 지정
	전문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대학교 - 인천 문화자원 조사/연구, 구도심 활성화 연구
	주민	주민경관표창제도입하여 주민참여 유도
	기타협력	협력업체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실시 시행의 참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수렴하기 위한 화교협의회의 참여
성과	수상	2011년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역사문화경관부문 최우수상
	기타성과	육남매 등의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 이색적인 관광 포인트로 관광객 유입

그림 2 인천 중구 개항기 역사문화거리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2) 대구 종로/진골목

-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배경과 자원

대구에는 다양한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대구의 지리적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경상도 관찰사영이 설치되었다. 경상도의 바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를 다스리는데 유리한 입지였으며 대구부 자체 내에 물산이 풍부하여 감영의 경비조달에 유리하며 지방의 물산이 쉽게 모이는 경제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박종서, 2013). 그리고 그 읍성의 중심이 종로였다. 종로는 대구 읍성과 연결하는 중심가로 역할을 하였으며 근대의 문화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1950년대 피난시절의 한국사회를 주인공의 삶을 통해 생생히 그려낸 소설 「마당 깊은 집」의 배경으로 등장한 지역이기도 하다.

바로 옆 진골목은 ‘길다’는 뜻의 경상도 방언 ‘질다’에서 유래한 말로, 대구 종로를 빗겨가는 400m정도의 골목길이다. 조선시대에는 종로에서 지체 높은 양반들이 행차를 하면 평민들이 땅에 엎드려야 했는데, 바쁜 종로의 상인들에겐 귀찮은 일이었다. 이에 장사치들이나 평민들은 종로 옆 골목으로 다녔다고 하는데, 진골목은 서울의 피맛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길이었다고 한다. 또한 대구 갑부 달성 서씨 집안이 대대로 살았던 골목이라 근대 초, 비싼 붉은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다. 당시 부호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였던 지역이며 당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하여 대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일대는 지역 자체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통한 풍부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도 가진 곳으로 보인다.

표 8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대구 중구)

역사문화자원분류		내용
건축물	문화재	대구화교협회 (등록문화재 제252호)
		대구제일교회 (대구유형문화재 제30호)
		대구 구 교남YMCA회관 (등록문화재 제570호)
		계산 성당 (사적 제290호)
		선교사 챔니스주택 (대구유형문화재 제25호)
		선교사 블레어주택 (대구유형문화재 제26호)
		선교사 스위트주택 (대구유형문화재 제24호)
		구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대구유형문화재 제49호)
		경상감영공원 내 선화당 (대구 유형문화재 제1호)
	경상감영공원 내 징청각 (대구 유형문화재 제2호)	
비문화재	정소아과-현존하는 대구 최고(最古)의 양옥건물	
	서상돈고택	
스토리텔링	소설 마당 깊은 집의 주요 무대	
	종로-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가장 변화한 거리라는 상징성 진골목-대구의 피맛골, 근대부호들의 주거처지, 국채보상운동의 근거지	
터(흔적)	대구읍성터	
기타	(체험관)계산예가-근대문화체험관	
	(명소)3.1운동계단(90계단길)-대구의 3.1운동에 참가한 인물들의 조형물 이 설치돼 있고 만세운동길 90계단에는 거리 갤러리를 포함하여 3.1운 동 당시의 장면을 재현해놓음	

▪ 사업배경

초기부터 공공에서 발굴하여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타 지역과는 달리 대구의 경우 2001년 대구시의 대학YMCA에서 대구 근현대사 골목답사를 통해 대구문화지도 제작에 나서게 된 것이 첫 시발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대구 도심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일신문, 영남일보)의 고정지면 시리즈화 되었고, 대구 골목 문화 가이드북이 발간되면서 대구 100년사 골목 투어가 시작되었다. 2002년 대구거리문화시민연대가 발족하면서 잊혀졌던 대구의 역사와 숨겨진 자산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

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소외되었던 근대 대구의 흔적을 새로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신택리지」를 출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유사한 「골목을 걷다」와 같은 각종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지역단체의 활동은 지역사회와 주민이 대구 근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업이 시작하는 발판을 만든 개기로 보인다.

2007년에는 대구의 대표적인 역사골목을 명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근대골목 디자인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동산동 및 계산동 일대를 대신으로 동산동을 연결하는 길을 중심으로 한 도로포장 및 전시시설 설치 위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공공 디자인 사업은 향후 진행될 구도심 골목정비 등과 같은 사업의 중요한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골목정비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역사적 장소 개발을 통해 도심을 관광 명소화하였다. 그리고 도심지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결하여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유도하며 ‘길’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 스토리텔링, 근대 이미지 재현, 친환경 디자인, 도심 골목투어 등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작은 골목 정비에서 시작된 사업이 모티브가 되어 대구읍성이 있던 지역을 하나의 근대역사문화벨트화하는 사업까지 확대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나타내며(이왕건·박태선·박정은·류태희·이유리, 2011) 이는 지역이 역사적 명소로 알려지는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 사업내용 및 규모

2009년 3월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중구의 ‘근대역사문화벨트 만들기’사업이 당선되어 본격적으로 근대역사문화를 보존, 재활용하는 사업이 실행되게 되었다. 국비 15억



원, 대구시와 중구청의 대응투자 등 총 3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또한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추구된 기본방향은 기존의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와 함께 공공이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심재창조를 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성로를 중심으로 한 대구읍성과 경상감영의 상징적 복원, 종로 환경개선, 읍성 내 진골목과 향촌동 피란문화거리 시설개선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축제와 테마관광을 함께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을 알 수 있다.

근대문화벨트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서 시행되었다. 1단계는 기반조성단계로 근대문화벨트로 만들 곳의 부지를 매입하고, 관광객들이 근대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여 근대문화벨트만의 공통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단계였다. 읍성을 상징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각 성로를 따라 ‘화강암’을 깔아 옛 성로를 표시했다.

2단계는 영역조성단계로 근대문화벨트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프로그램 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성하는 단계이다. 화교거리였던 종로를 종로의 이미지에 맞게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진골목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피란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 「마당 깊은 집」 테마 골목을 조성하고, 도심 관련 공간문화 자료를 각 전문과들과 협력하여 구축하는 단계이다. 또한 2단계에서는 축제 및 공간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단계는 읍성부활 단계로 북성로를 중심으로 테마 공간을 만드는 단계로서, 북성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상감영공원을 복원, 향촌동 전후문화와 관련한 공간조성 및 한옥마을 골목길을 정비하는 단계였다. 각 단계를 나누어 물리적 개선과 사회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단일 사업을 넘어 축제와 공간운영 방안의 고려는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보인다.

표 9 근대문화벨트 종합추진계획

구분	기반조성단계	영역조성단계	읍성부활단계
사업시기	2007.05 - 2009.12	2009.04 - 2010.06	2010.06 - 2011.07
사업비	10,400백만원	3,180백만원	2,200백만원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1차)</li> <li>· 근대문화골목 디자인 개선 사업</li> <li>· 봉산문화거리 기반조성사업</li> <li>· 근대문화골목 체험관 부지매입 사업</li> <li>·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2차)</li> <li>· 근대문화골목 체험관 조성 사업(시범사업과 동시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로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li> <li>· 진 골목 및 골목길 환경개선사업</li> <li>· 김원일 소설 「마당 깊은 집」 테마골목 조성</li> <li>· 도심부 공간문화 자료 구축 사업</li> <li>· 도심 및 읍성 공간 미니어쳐 제작</li> <li>·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li> <li>· 지원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감영복원 계획 수립(계획)</li> <li>· 북성로 이미지 개선사업</li> <li>· 향촌동 전후문학 공간조성 사업</li> <li>· 한옥마을 골목길정비사업</li> </ul>

다양한 근대문화벨트 사업 중 주목할 만한 사업은 바로 종로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진골목 환경개선사업이다. 먼저, 종로는 영남제일관에서 경상감영까지 이어진 조선시대 대구 중심가를 말하는 곳으로 대구 중구를 대표하는 역사자원(표 8참고)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중심에 있는 거리이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화교들이 많이 정착해 화교거리로도 불리는 곳이다. 근대까지만 해도 제일 상업이 번화했던 노른자위 땅이었던 곳으로 지금은 전통떡집, 전통 다기집, 그리고 전통찻집 등이 들어서고 있어 전통관련 가게 특화지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종로 거리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 아스팔트 바닥에서 전통적인 이미지를 낼 수 있는 소재의 바닥으로 고치고, 가로등, 가로시설물 등을 다기와 골동품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종문양의 종로 표지석 및 입간판을 제작하고, 도로 양쪽 입구에 영남제일관을 이미지화한 시설물도 설치되었다. 차량 통행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도록 되어있지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차량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또 가로환경개선계획에서 나타나는 이팝나무 식재, 디자인가로등 설치, 보도확장 및 보·차도 턱 없애기 등은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보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진골목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약 6억 원이 투입되어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진골목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표지판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진골목 구간 골목길 바닥을 정리하며,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고, 조그마한 공원이 주민주도의 작은 도서관과 함께 조성 및 설치되었다. 지역이 가진 한옥과 근대건축물이 진골목에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 실시한 담장전비와 황토포장 등은 거리에 상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며 공원과 작은 도서관은 머무름과 휴식을 제공하므로써 골목길의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더한 계획으로 보인다.

#### ▪ 사업 추진 주요 주체

대구 근대문화벨트의 사업 진행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구청과의 협력관계이다. 물리적 사업의 추진과 계획에서는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업 시작 전부터 대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대구 대학YMCA, 거리문화시민연대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업에서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해설사 양성, 골목 투어 계획에 있어서의 개발에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지자체와 전문가로 한정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중구청이 재단법인 대구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대구대학과 공동주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중구청의 지원과 시민단체의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했다. 주요 프로

그럼으로는 주민참여 대구 읍성 가꾸기 세미나 및 도시대학 사업과 진골목 및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 대구읍성 알리기 프로그램과 종로·진골목·화교축제 통합 행사 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 ▪ 사업 후 영향 및 효과

이 사업으로 인해 대구 근대골목이라는 이름으로 대구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먼저, 200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인 ‘우리사랑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차지하고 관광공사에서 대구 중구 골목투어로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어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골목길도 관광 상품이 되고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임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sup>7)</sup>. 또 관광공사에서 실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곳’ 중 7위에 선정되면서 또 한 번 주목 받기도 하였다.<sup>8)</sup>

2013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올해 ‘아시아 도시 경관 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구 중구 근대골목으로 ‘2013년 지역문화브랜드대상’의 최고 영예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평가에 따른 수상이유에 따르면 근대골목기반구축사업 및 주민참여프로세스, 골목투어성공스토리, 근대골목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브랜드 상표 및 업무표장등록 등 창조적 활용을 통한 성공사례라는 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앞서 2011년 ‘100년 역사와 문화로 되살리는 근대역사문화경관조성

7) 문화체육관광부(2012.06.05.), ‘한국관광을 빛낸 10개의 별 선정’ 보도자료.

8) 한국일보(2012.12.26), 2012 한국관광의 별-대구근대골목 참고.

사업'으로 우수상, 2012년 '동성로 디자인개선사업'으로 최우수상, 2013년 '역사의 골목길로 떠나는 근대로의 여행, 종로·진골목 개선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2014년에도 수상하면서 4년 연속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같이 매해 상을 받으면서 대구 중구의 거리조성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 환경개선의 한 가지 분야에서만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리적 개선부터 골목투어의 성공과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역 언론들도 골목길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투어가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한해만 65,000여명이 대구를 찾았고 2013년에는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sup>9)</sup>. 또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청소년단체 관광객이 2,200여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전국 수학여행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도하였다<sup>10)</sup>. 일반인들의 근대골목투어 참가도 2012년 1,679차례 62,199명에서 2013년에는 2,813차례 200,533명으로 투어 횟수는 2배, 참여자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보아 대구근대골목을 찾는 연령과 직업군이 다양화되는 추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업도시였던 대구가 관광 명소화되는 것은 물론이며 역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근대골목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9) 동아일보(2013.08.27), 대구 중구 “골목투어가 경제 활력 효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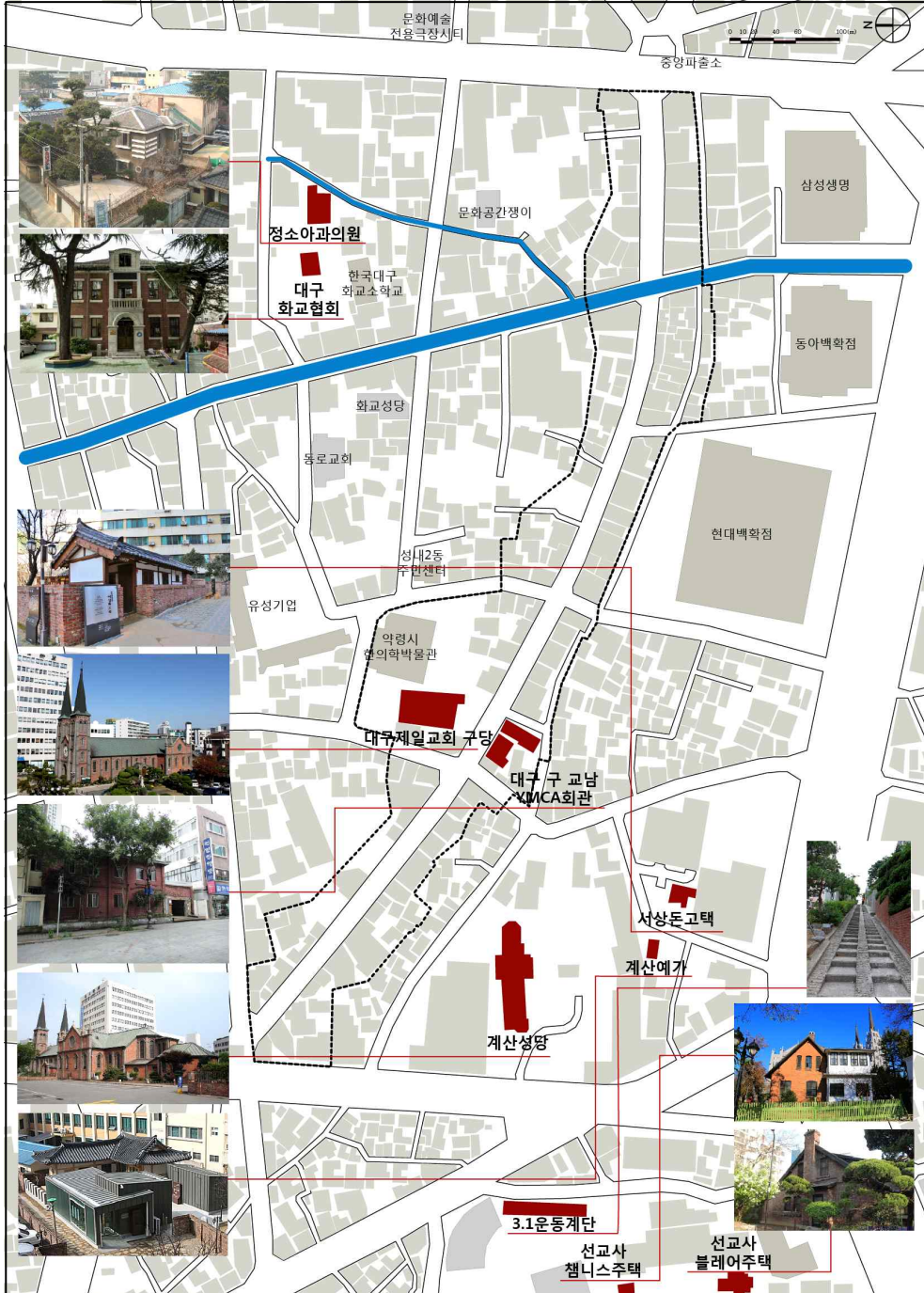
10) 경북매일(2012.10.22), 대구 ‘근대화 골목 전국 수학여행지 인기’ 참고.

표 10 대구 종로/진골목 가로환경개선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종로거리 가로환경개선사업/진골목 및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일대	
길이	종로 약 510m, 진골목 약 200m	
사업기간	2009-2010	
역사자원	종로 : 옛 읍성과 연결, 진골목과 함께 소설 마당 깊은 집의 주요 무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가장 변화한 거리 진골목 : 대구의 피맛골, 근대 부호들의 거처, 대구 최초 2층집 등	
사업내용	물리적 계획	종로 : 기존 아스팔트 바닥에서 전통적인 이미지를 낼 수 있는 바닥으로 교체, 가로등과 가로 시설물 등을 설치, 양방향 통행에서 차 없는 거리로 통제, 입간판 교체 진 골목 : 표지판과 입간판 교체 및 설치, 바닥정비, 야간 조명등 설치, 주민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설치
	사회적 계획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작은 도서관 운영, 해설사 양성 및 스토리텔링 구축, 골목투어와의 연계
사업단계	계획단계	대학YMCA, 거리문화시민연대의 대구골목문화 가이드북과 신타크지와 같은 작업으로 통해 대구 지역자산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및 거리 조사, 초기 시민단체의 골목투어 시행
	시행단계	2009년 국토해양부의 근대역사문화벨트 구축사업 당선으로 대구시와 중구청이 종로-진골목을 포함한 거리의 물리적 개선작업 시행,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골목투어 진행(시민단체는 스토리텔링과 노하우 협업), 해설사 양성
	사업 후	시민단체와 협력아래 지속적인 지역자산의 아카이브작업, 읍성복원으로 넓혀 확대 사업 진행 중 해설사양성과 시민대학의 운영(시민단체의 협력)으로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시키려 노력
사업비	총 사업비	진골목 환경개선사업 6억, 종로가로환경개선사업 24억
	사업비 조달방법	2007년 골목정비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시비 2009년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 당선으로 지원과 시비 2009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로도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의 지원과 시비
참여주체	행정	대구시청/대구 중구청 - 주도적 물리적 사업진행
	전문가	대구대학교 도시계획연구소, 자문위원회
	주민	상인협의회, 지역주민 - 거리환경 정비에 대한 주민동의와 입간판 개보수 작업에 대한 의견수렴
	시민단체	대구 대학 YMCA, 거리문화시민연대 - 공공의 물리적 개선을 뒷받침해줄 지역역사자산의 아카이브구축, 초기골목투어 진행의 노하우와 함께 지역 스토리텔링 작업의 선구적 역할

성 과	수 상	<p>2009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  2009년 한국관광공사 중구 골목투어를 걷기 좋은 길에 선정  2011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100년 역사와 문화로 되살리는 근대역사 문화경관조성사업'으로 우수상 수상  2012년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  2013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아시아 도시 경관상 대상 수상  2013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의 대상 수상  2013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역사의 골목길로 떠나는 근대로의 여행, 종로·진골목 개선사업'으로 우수상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대구 진골목 개선사업'으로 특별상 수상</p>
	기타성과	<p>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곳 중 7위에 선정  각종매체에서 근대거리 조성으로 인한 관광객 급증을 앞다퉀 다루고 있음 (2012년 6,5000여명, 2013년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초중고의 수학 여행지로도 각광 등)</p>

그림 3 대구 종로/진골목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3)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일본인 가옥 거리)

-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배경과 자원

구룡포 지역의 개항기 근대 역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885년부터 구룡포의 개항이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일제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당시 풍부한 수산자원은 일본인들의 본격적인 이주를 가져왔고, 일본인 가옥과 거리가 조성되면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절정을 이루면서 1층 상점, 2층 다용도실로 이루어진 일본식 건축물들이 들어섰으며 각종 숙박시설도 함께 지어졌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떠나게 되고 남겨진 시설이 방치되었다(김주일·이대준, 2010). 이렇게 방치된 시설들은 2000년 전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지역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룡포에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51채의 적산가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구원, 2010). 다른 지역의 경우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의 적산가옥은 없어지거나 점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구룡포의 경우 군집해 한마을에 모여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가진 구룡포와 남아 있는 가옥들은 지역을 알리고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자원으로 주목받게 된 바탕이 된 것이다.

표 11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포항 구룡포)

역사문화자원분류	내용
건축물	용왕당
	적산가옥 51채
스토리텔링	기존 특산물 과메기의 생산지인 점과 일제 강점기 풍부한 어장으로 일본인 유입이 늘어 생겨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적산가옥을 엮어 스토리텔링화
기타	(비석) 구 충훈탑 기반

## ▪ 사업배경

포항시는 2011년 시정구호를 ‘스마트 포항 2011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하여’로 정하고 문화·관광·복지 분야와 녹색성장, 글로벌 도시건설에 주력하기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의 실현 중 일부로 포항시는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를 하나의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또 최근 걷기 열풍을 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걷기 코스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포항시도 둘레길을 함께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둘레길을 따라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유물, 먹거리, 산악레포츠 경기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둘레길에 따른 볼거리에 해당하는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은 역사유물과 관련하여 구룡포 산1번지의 마봉루 발산봉수대와 구룡포 돌문~눌태~동해 발산리에 이르는 장기목장성(말우물, 관아, 마구간), 근대역사거리(일본인 가옥거리)강사 지식묘, 동해 중산리 중앙서원 등이 남아 있는 지역을 개발, 정비하는 방안이 2011년 계획되어졌다. 즉, 거리조성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관광도시화 계획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역사문화와 관련되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구룡포는 과메기(포항의 특산품으로 구룡포에서만 생산)와 신선한 수산물로 과거부터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되어 있으며, 이 일대는 일제 강점기 풍부한 어장으로 일본인 유입이 급속히 늘면서 일본가옥거리가 형성되어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배경 속에 사업 추진에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구룡포의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고 노후한 거리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도 보인다. 역사문화거리는 역사문화경관 거점으로 지정되어 경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사업진행에서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한 2011년 당시 박영호 포항시장은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복원사업과 함께 포항마케팅을 함께 엮어 구룡포에 살다 광복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한 르포집 ‘구룡포에 살았다’ 일본현지 출판기념회, 포항시 전 공무원 일본 연수, 일본인 관광객 1만명 유치 추진단,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항과 일본의 친선 교류를 한 단계 높이려 하였다. 또 2013년에는 구룡포항 북방과제 활어위판장 입구에서 포항의 대표 수산물인 구룡포 대게와 오징어, 문어, 과메기 등을 주제로 포항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가 45일간 개최되었고 이와 동시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는 ‘구룡포 100년을 보다’라는 주제로 100여 년 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피볼 수 있는 근대문화 테마행사도 함께 진행하여 수산물로 알려진 구룡포에 축제를 열면서 근대거리도 함께 홍보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 ▪ 사업내용 및 규모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86.1억원(국비37.5억, 도비 11.25억, 시비 37.35억)이 소요되었으며, 거리 475m의 거리의 조성과 일본인 가옥 51동 중 30동의 건물(입면)보수, 공원조성, 부대시설(주차장)정비, 토지 및 건물매입(985㎡)등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거리 내 홍보전시관, 특색적인 진입마당, 쉼터마련도 포함되었다. 즉, 거리조성사업을 통해 기본경관계획의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가로 정비와 건축물 외관 및 형태를 정비·개선하는 기능적 특화거리로의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공공주도형 사업으로서 일본식가옥(적산가옥)의 원형복원 및 가로시설물정비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테마 거리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명소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 ▪ 사업의 성과와 사업 후 논란

이로써 포항시는 일본인 등 내·외국인의 관광인구가 증가하고 구룡포의 상업지역과 연계되어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구룡포에 체류시간 증가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역사적 공간의 복원으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되었다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역사문화경관 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일본식 가옥을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경관적 자산으로 재조명하고, 민과 관, 전문가의 노력<sup>11)</sup>으로 특색 있는 가로로 조성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옛 거주자를 찾는 노력과 국내외 자문단의 협력관계를 통해 외관복원과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일부건물의 이전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역사적 흔적을 경관사업으로 발전시킨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SNS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근대역사문화 볼 수 있는 관광거리로 인식하고 방문이 이어지는 것을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때,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작은 골목에 지나지 않는 지역이었으나, 환경개선을 통해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80여명의 크고 작은 단체 대표와 주민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1986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기 이전 영일군의 대표 읍이었던 구룡포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포항시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에 구룡포 읍장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음을 지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sup>12)</sup>. 또, 복원에 있어 역사적인 고증도 없이 진정성을 살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조성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한 지역 언론은 일본

11) 경관계획에 의한 공공 주도 사업으로 거리조성사업 추진위해 주민협약을 체결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 협약으로 사업완료 후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려 하였다.(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Bits/Building>)

12) 경북방송(2014.02.05), 구룡포의 자존심 향토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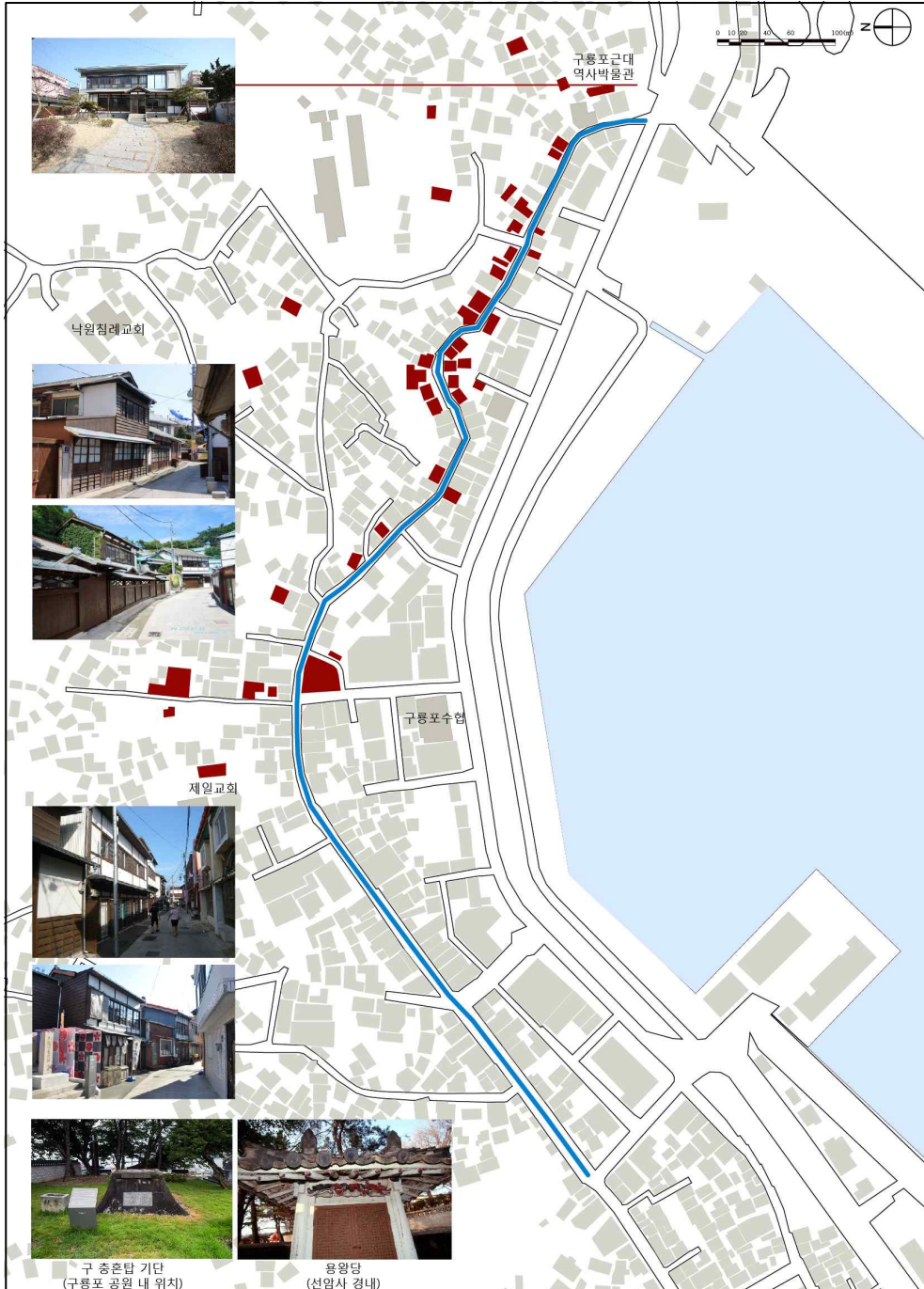
풍의 찻집 앞에는 한국형 미장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집도 길모습만 일본풍이지 들어가면 우리나라 찻집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일본식 전통 바닥인 ‘다다미’도 시가 돈이 든다며 일반 장판을 깔아 놓았다<sup>13)</sup>고 기고하고 있다. 사업시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후 실제 지역의 역사자원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의 지원과 방향설정 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일본일 가옥 거리) 조성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구룡포 근대문화거리(일본일 가옥 거리) 조성사업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43 일대
길이		약 475m
사업기간		2011-2013
역사자원		적산가옥 51채, 용왕당, 구 충훈탑 기단 등
사업내용		일본인가옥 51동 중 30동의 건물(입면)보수, 공원조성, 부대시설(주차장)정비, 토지 및 건물매입(985㎡), 거리 내 홍보전시관 및 쉼터 마련 등
사업단계	계획단계	‘스마트 포항 2011 영일만 르네상스’ 일환으로 둘레길과 연결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 조사 및 개발, 정비 방안 계획(경관기본계획수립)
	시행단계	적산가옥 입면정비, 구룡포 근대역사관 건립, 가로시설물 정비, 구룡포 공원조성
	사업 후	‘구룡포에 살았다’ 르포집 출간, 일본과의 친선교류 및 관광객 유치위한 공무원 연수, ‘구룡포 100년을 보다’ 축제 개최
사업비	총 사업비	약 86.1억원(국비 37.5억, 도비 11.2억, 시비 37.35억)
	사업비 조달방법	경상북도의 2011년 ‘3대 문화권 문화·생태기반조성’의 50개 사업 중 세부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음
참여주체	행정	포항시청 - 주도적 사업진행
	전문가	계명대 일본학과, 도시자문위
성과	수상	2012년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역사문화경관부문 최우수상
	기타	역사흔적을 찾는 관광객의 유입이 늘고 있음 복원에 있어 역사적인 고증 없이 진행됐다는 논란 거리에 면한 적산가옥의 입면만 바꿔 반쪽 복원이라는 논란

13) 뉴시스(2013.09.26),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고증 없이 엉터리 조성 참고.

그림 4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일본인 가옥 거리)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4) 군산 근대역사경관로

-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배경과 자원

서해안의 대표적 항구 도시 중 하나인 군산은 1899년 5월 1일 대한제국 정부의 속령에 의해 개항되었다. 개항과 함께 군산에서는 조계지가 설정되어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근대적인 항만 시설과 철도, 도로 등의 건설로 군산의 도시 공간은 급격히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공서, 상가, 주거시설 등의 근대 건축물이 건설되면서 군산은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건축물들의 원형이 남아 있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 등장하기도 한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1923년 지어진 함석지붕의 2층 벽돌 건물로 광복 후 한국은행, 한일은행 군산지점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제374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일제 강점기 일본인 지주들의 집들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한국제분 관사는 일제 강점기 포목상이었던 히로쓰가 건축한 집으로 정원과 본채가 당시 그대로 있으며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야쿠자 두목 하야시의 집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영춘 가옥도 일제 강점기 최대 농장주였던 구마모토 리헤이의 집으로 그 곁에는 일본인들이 전국에서 수집한 유물들을 보관하던 3층 높이의 거대한 금고형 건물도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일본에서 들여온 삼나무로 지어진 절집 동국사는 일본의 절집 그대로의 모습이며 요사채까지도 일본풍을 그대로 따랐다. 일제 강점기 전국에는 487개의 일본 사찰이 있었으나 남아있는 것은 동국사와 부산의 소림사 단 2곳뿐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남아있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은 지정된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비지정 근대유산도 다양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3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군산)

역사문화자원분류		내용
건축물	문화재	구 군산세관 본관 (전북도 기념물 제 87호)
		이영춘 가옥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 200호)
		동국사 (등록문화재 제 64호)
		구 시마타니 금고 (등록문화재 제 182호)
		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 (등록문화재 제 183호)
		구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 (등록문화재 제 재372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록문화재 제 374호)
	비문화재	수시탑 및 인근 기념물
		군산 내항
		장미동 40 주택
		중앙로 1가 6-11 상가
		군산시청 3청사
		빈해원
		구 군산부윤관사
		신흥동 57-9 가옥
		영화동 12-6 가옥
		월명동 8-19 가옥
		월명동 9-7 가옥
		장미동 29-3 가옥
군산미즈카페(구, 미즈상사)		
유적지	군산 해망굴 (등록문화재 제 184호)	
기타	(박물관)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사업내용 및 규모

군산시는 자금의 조성을 위해서 국가주체의 공모사업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당선하였다. 특히 근대역사문화벨트 사업은 관광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의 적극적 추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근대산업유산을 통한 문화예술창작벨트조성’ 공모사업에 2008년 응모한 결과이다. 당시 전남 신안, 경기도포천, 대구 연초장, 충남아산과 더불어 사업지



5곳 중 한군데에 선정되었다. 이로써 ‘군산내항 일원 산업유산의 문화공간 벨트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자 근대문화유산인 내항부두, 구조선은행, 나가사키18은행, 구 세관을 패키지화하고 시립박물관을 설립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약 140억원(국비75억, 지방비63억)의 예산이 투자되었다. 여기에는 군산시의회 자체에서도 2009년 예산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 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비, 근대유산 경관 가꾸기 및 문화공간 벨트화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또 국회 장세환 의원은 2009년 2월 19, 20일 양일간 결친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서 유인춘 문화부장관과 이건무 문화재청에게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이달 당시 전북 김완주 지사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군산시는 지역의 사업을 알리고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에 나섰음이 보이며 이를 통해 총사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의 진행에서도 군산시청이 주도하는 공공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두드러지는 주민참여 내용은 없으나 군산대와 경원대가 용역수행기관으로 협력하였다. 2009년 5월에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근대건축유산 활용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용역 보고회 등을 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였다.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면(面)적인 접근인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 벨트화 조성사업으로 일제 강점기 쌀을 반출하는 전략적 산업 항구인 내항 주변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1년까지 3년간 지역의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옛 조선은행, 나가사키 18은행, 내항부두 부잔교)을 복원하여 활용 예술창작 공

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는 선(線)적인 접근인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이다. 근대역사거리조성으로 군산 월명동, 영화동, 장미동 일원에 기반시설경관정비, 문화공간조성, 화훼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은 군산 개항 110년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원도심권의 시대적 삶에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화권역과 박물관 주변 쌀 유통의 역사와 연계한 경관로 및 탐방로 조성 등으로 나뉘 추진되었다. 실시설계에 담고 있는 주 내용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원도심지역 근대건축물 특성과 개별성을 강조한 근대역사체험공간(월명성당 및 일해옥 권역) 4,253㎡에 시대 형 민박체험, 시대 형 찻집, 청주주조(판매장, 시음장), 중정형 공원, 문형문화 전수관, 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었다.

전체 사업은 2013년 6월 28일 대역사박물관 부근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개관식’을 여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 되었다.

#### ▪ 사업 후 영향 및 효과

현재 용산역에서 오전 6시23분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이용하면 10시 5분에 군산역에 도착, 10시 25분에 출발하는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 관광진흥과는 군산 시티투어를 마련하였다. 또 2012년 전북도 민체전(18~20일)을 유치하면서 군산시는 시티투어를 운행하여 군산 근대역사문화단지, 은파호수공원, 새만금방조제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2012 일본 오사카 트래블페어에 참가해 전북방문해의 해 홍보와 전북지역 관광 상품의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66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군산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는 515억 5000

만원 수준으로 건설비 투입효과 478억 9900만원, 매출액 투입효과 36억 5200만원을 예상했고 고용유발은 건설과 매출액 투입효과를 합해 595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sup>14)</sup>. 이를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이 지역의 관광산업,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 근대문화자산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2010년부터 군산시는 다양한 상을 수상하게 된다. 먼저, 2010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전북 군산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평가에서 기업유치와 문화·관광 분야의 우수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군산시의 정책 운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축제 및 문화행사로 지역발전을 이끌었다 점도 수상에 큰 몫을 하였으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근대역사 경관사업,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공모사업 선정 등 각종 인프라 확충도 높은 점수의 요인이 되었다. 또 같은 해에 2010 전국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제 5회 도시의 날’ 개최지로도 선정되었다.

2013년에는 근대역사경관으로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군산항 일대의 쇠퇴해 가던 구도심을 역사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의 근대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함으로써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은 단순히 잘 조성된 사업으로 받은 상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에 개관한 군산의 특화된 박물관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누적 관람객이 개관 22개월 만에 40만명을 돌파하는 등의 수치와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 단지가 되어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이 각광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군산이 관광명소로 새롭게 탈바꿈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14) 뉴시스(2009.12.16.), 군산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 ‘선배’ 참고.

표 14 군산 근대역사경관로 조성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군산 근대역사경관로 조성사업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일대
길이		탐방로 약640m, 경관로 약700m
사업기간		2008-2009
역사자원		군산내항, 구 조선은행 외 23곳
사업내용		근대역사 체험 공간, 근대역사 경관로, 중정형 소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여 원도심 개항도시 원형을 간직하면서 특화된 도심공간으로 정비
사업단계	계획단계	군산의 관광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가주체의 공모사업에 다양하게 지원하여 사업비 마련,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행단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근대무화유산을 복원, 140억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경관 정비, 문화공간 조성,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 전라북도에서는 해설사 양성
	사업 후	시티투어 실시, 근대문화축제실시,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해설사로 양성 및 투입 예정
사업비	총 사업비	약 140억원(국비 75억, 시비 63억)
	사업비 조달방법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체 '근대산업유산을 통한 문화예술창작벨트조성'에 당선
참여주체	행정	군산시청 - 주도적 사업진행
	전문가	전북발전연구원, 전북대, 원광대 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 군산대, 경원대
	주민	-
성과	수상	2010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2010년 전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 2010년 제5회 '도시의 날' 개최지로 선정 2013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 수상
	기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누적관람객 추산 관람객이 늘고 있음

그림 5 군산 근대역사경관로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5) 김해 가야의 거리

-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배경과 자원

김해의 가야시대 역사유적들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된 소재로, 역사유적과 주변 환경의 정비를 통해 김해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야시대 역사유적으로는 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구지봉을 비롯하여 구야국의 초기의 수로왕릉과 허왕후릉, 대성동유적, 봉황동 유적 등이 있다. 대성동 유적(사적 제 341호)은 삼한시대 구야국에서 금관가야 시기까지의 고분군으로 가야 무덤 형식의 변화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중·일의 문화교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2007년 4월 국회에서 경관법이 통과한데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난개발 건물을 퇴출하고 도시의 미와 멋을 최대한 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었고 김해는 이미 2000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디자인

표 15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김해)

역사문화자원분류	내용	
건축물	김해향교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217호)
유적지	김해수로왕비릉	(사적 제74호)
	김해수로황릉	(사적 제73호)
	대성동고분군	(사적 제451호)
	구지봉	(사적 제429호)
	봉황대	(사적 제2호)
스토리텔링	금관가야의 중심지	
기타	(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	
	(박물관)대성동고분박물관	
	(박물관)김해민속박물관	
	(테마공원)수릉원	
	(체험관)김해한옥체험관	

인과를 신설 박사급 전문 인력을 갖추고 도시 경관 로드맵과 추진 주체를 통일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sup>15)</sup>. 이러한 가야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남겨진 유적지는 통합적인 보존과 함께 정비 방안이 필요하였으며 이들을 가로를 통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계획안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해시 추진의 인력을 구축과 사업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 ▪ 사업내용 및 규모

김해 가야의 거리는 김해시청, 즉 공공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거리환경 개선사업이다. 역사적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 특성이 강조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야사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야의 거리는 이러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에는 문화 유적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가 후에 시민 공모에 의해 가야의 거리로 변경되었다(이상민, 2008).

김해의 가야의 거리는 고대 가야사를 주제로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한 사례로 1999년부터 기획하여 최종 조성에 10여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구산동 일원의 연지교에서 전하교 사이의 연장 약 1.8Km의 가로변에 조성한 특성화 가로로 모두 3구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져 있다. 해상왕국 가야를 상징하는 해발천의 하천축과 강변도로 축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업비는 151억원(연지교~봉황교:62억원, 봉황교~전하교:89억원)이 투입되었다.

김해시는 신도심이 발달함에 따라 해반천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구도심이 쇠퇴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으로써 구도심이 담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유적복원 중심의 1단계 사업(문화재과 주관)이 완료되고, 다음으로 도시적 차원에서 그린

15) 경남도민일보(2007.12.04.), 경남도민일보, 지역을 바꾸는 공공미술 참고.

그림 6 김해 가야의 거리 배치도

출처 : 「월간 건축문화」, 2006. 4월호



네트워크로 조성하는 2단계 사업(문화재과와 관광과 주관)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가야의 거리 프로젝트는 북쪽으로부터 수로왕비릉,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사회교육관, 대성동고분군 휴게소, 노출전시관, 대성동 고분전시관, 수로왕릉, 한옥체험관, 봉황대, 패총 등 도시에 점 또는 면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 유적 및 시설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사업 후 영향 및 효과

가야의 거리 사업을 비롯한 역사문화 복원사업을 통하여 쇠락한 구도심이 점차로 공원과 수변 공간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로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녹지축은 보행 체계와 관련을 가지면서 도시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유적 정비를 통한 가로, 도시경관 등 도시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관광이나 체험 환경과 생활환경이 동시에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상민·차주영·임유경, 2007).



가야의 거리는 2006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10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우수상과 2010년 경상도가 선정한 '경남의 걷고 싶은 길 25선'에 포함된 명품 거리로 홍보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해 그해 연말까지 가야인 들의 생활상을 시대별로 느낄 수 있도록 거리를 새 단장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2012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완료되었다. 현재까지 매해 7-8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는 국립김해박물관 앞 가야의 거리 야외공연장에서 '가야의 거리 한 여름 밤 테마 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개최되었던 지역 축제인 가야 문화축제가 매해 4월 가야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되면서 거리와 지역 축제가 지속적으로 상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표 16 김해 가야의 거리 조성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가야의 거리 조성사업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일대	
길이		약 2.1km	사업기간 1999-2009
역사자원		김해시 전체적으로 가야시대 유적이 형성분포	
사업내용		점, 면으로 흩어져있는 유적과 시설들을 통합하는 가로의 조성 - 녹지공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단계	계획단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	
	시행단계	도로환경 개선,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오픈스페이스 조성, 보행 체계와 함께 녹지 환경 구축, 유적지 정비 등	
	사업 후	야외 공연장에서 7, 8월 매주 콘서트 개최, 거리 문화축제 개최	
사업비	총 사업비	약 151억원	
참여주체	행정	김해시청 - 주도적 사업진행	
성과	수상	2006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우수상	
	기타	2006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 2010년 경상남도가 선정한 '경남의 걷고 싶은 길 15선'에 선정	

## 6) 홍성 역사문화거리

-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배경과 자원

1914년 홍주군과 결성군이 합쳐지면서 탄생한 충남 홍성군에서는 고려 말기의 큰스님 보우국사, 명장이자 재상 최영, 사육신 성삼문, 조선 후기의 문신 남구만, 조선 말기의 순국지사 이설, 독립운동가 김복한 선생 등이 홍성 출신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펼친 홍성 출신의 대표적 인물로 만해 한용운 선생과 백야 김좌진 장군이 손꼽힌다. 이렇듯 홍성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성 전체 내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다. 구도심의 중심으로 홍성군청 바로 옆에 있는 홍주읍성은 고려 시대에 축조됐으며, 최대 길이가 1,772m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810m만 보존되어 있다. 성내 관아 건물도 35동이었지만, 현재는 조양문과 홍주아문, 안회당(동헌), 여하정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관아 자리에는 홍성군청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읍사무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구도심을 벗어나서는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로 나가자마자 쉽게 찾을 수 있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부터 만해 한용운의 사당까지 역사적 장소를 기리는 곳이 곳곳에 있다. 다음 표17은 홍성 역사문화거리 주변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내용이다.

표 17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홍성)

역사문화자원분류		내용
건축물	문화재	조양문, 홍주아문 (사적231호)
		결성향교 (충남도 기념물 제134호)
	비문화재	여하정
		안회당
기타	(박물관)홍주성역사관 (테마공원)홍주성역사공원	

- 사업내용 및 규모

홍성군은 홍주성을 중심으로 그 성터 내의 관아 터와 남아있는 홍주문 등의 복원과 보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였다. 그 첫 공모 선정으로 2003년 소도읍 육성사업이 당선되어 5개 사업 분야로 나누어 끝냄으로써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5개 사업 분야에는 홍주성 바로 옆 홍성교-조양문을 연결하는 350m 구간을 친환경 천연석재로 포장해 ‘역사문화의 거리’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총사업비 206억원이 투입되고 이 중에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는 30.3억여원의 예산이 들었으며 15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었다. 도로변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보상도 필요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주민동의를 유일한 주민참여 내용으로 나타난다. 홍성은 사업 진행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소도읍 육성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획단 내에는 군청 내 각 과의 담당자와 대학교수, 실시설계를 위한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군청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친환경 공법인 페이빙스톤 포장으로 시공방식으로 거리를 조성하였다. 페이빙스톤(천연석재) 공법은 여름철 도시 열섬방지 효과는 물론 우수를 땅속으로 환원시키는 친환경 공법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알려져 채택된 것으로 이미 서울시청 앞마당을 비롯한 일부 구청 진입 도로에 시공되었던 것이다(홍성군, 2009). 친환경 포장과 동시에 전신주를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도로변의 보도와 화단 조성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홍성 역사문화거리는 2005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되었다.

## ▪ 사업 후 영향 및 효과

사업 이후 수십억 원씩을 투입해 조성된 거리가 인근 주민이나 상인 등이 무단으로 세워놓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6년 한 지역신문은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서 세워놓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도로 양측을 점령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왕복 2차로 도로를 곡예운전으로 겨우 통과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출퇴근 시간은 물론 하루 종일 심각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며 퇴근 시간대에 이곳을 통과하려면 3-4번씩 신호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에 만들어 놓은 노상 주차장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들이 하루 종일 세워져 있어 ‘군민들의 혈세로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비아냥거림도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였다.<sup>16)</sup>

이와 함께 역사문화의 거리가 현재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역사문화의 거리는 천연석재로 포장돼 차량속도가 줄어드는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안전도로로 평가받아 왔지만 2012년 하수관거 공사 후 천연석재가 아닌 아스콘 포장으로만 덧씌워졌다.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일부 구간을 아스콘 포장 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빨리해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었다. 게다가 하수도에서 심한 악취가 올라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sup>17)</sup>며 여러 지역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역사문화거리라는 이름에 따른 지역 효과보다 불편과 거리자체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 부각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16) 대전일보(2006.04.16), 홍성지역, 전봇대 사라진다 참고.

17) 홍성신문(2013.01.08), ‘홍성 역사 문화의 거리’ 찾습니다 참고.

## 그림 7 도로 방치 및 주차장으로의 변질

출처 : 홍성신문(2013.01.08.)



2006년 9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충북 제천과 충남 홍성을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충남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홍주성 주변의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홍성을 중심 지역을 또 다른 ‘역사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방향을 잡았다. 홍주성 주변의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홍성을 중심지역을 ‘역사·문화의 거리’로 조성과 함께 암·남장·소향·고암 등지에서 온천과 대학타운, 택지개발, 신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벌여 문화·관광·연구·주거·물류단지를 서로 연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착공하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다. 일부 주민들이 비효율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홍성군은 주민반발로 정상추진이 어려워지자 일부구역은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특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무여건이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홍성군 주택 및 택지 초과공급 등이 이유가 되며 결국 무산되었다. 이는 사업추진이 철회된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을 위해 묶여있던 지역이 침체되고 지역 주민의 허탈감 및 노후화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18)</sup>

18) 뉴시스(2010.07.22), 2800억 규모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 ‘물거품’ 참고.

표 18 홍성 역사문화거리조성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홍성 역사문화거리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조양문-홍성교) 일대
길이		약 350m
사업기간		2005-2006
역사자원		인근 조양문과 홍주성터, 복원중인 홍주읍성
사업내용		물리적 계획도로폭원 확장, 친환경 천연석재로 포장, 화단설치, 전선지중화 공사
사업 단계	계획단계	MP 교수를 중심으로 기본 계획 수립
	시행단계	친환경석재로 도로 포장, 전신주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확폭을 위해 주민동의를 받고 철거작업 등
	사업 후	-
사업비	총 사업비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 전체 206억원(국비 100억, 도비 25억, 군비 76억, 민자 5억) 중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약 30.3억원
	사업비 조달방법	2003년 국토해양부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당선되어 지원
참여주체	행정	홍성군청 - 주도적 사업진행
	전문가	인근 대학 교수
	주민	-
	기타협력	인근 시장 상인협의회 - 초기 계획단계에서 자문으로 참여
성과	수상	-
	기타	바닥재 소음과 무단 불법주체 등으로 문제제기 출퇴근 시간 심각한 교통체증

그림 8 홍성 역사문화거리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7) 전주 한옥마을 은행로/태조로

-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배경과 자원

근대 이전에 한옥군집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한옥마을 내에 입지한 전통교육 시설인 향교가 1603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이 당시에 이미 한옥마을이 자연취락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옥마을은 전주성곽이 1907년부터 철거되고 도로개설 등 근대도시 구조로 정비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한옥마을의 건축물 구성은 1960년 이전 건축물이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 이전 건축물의 비율은 83%에 이른다. 이는 한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전주한옥마을은 이미 현재와 같이 한옥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송재복, 2010).

표 19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전주 한옥 마을)

역사문화자원분류		내용
건축물	문화재	한벽당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
		조경묘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
		오목대 (전북도 기념물 제16호)
		전동성당 (사적 제288호)
		경기전 (사적 제339호)
		전주향교 (사적 제379호)
		풍남문 (보물 제308호)
	전주객사(전주풍패지관) (보물 제583호)	
비문화재	한옥 군집(543 <sup>19</sup> )등)	
기타	(비석)예종대왕 태실 및 비 (전북도 민속자료 제26호)	
	(어진)이성계어진 (보물 제931호)	
	(나무)은행로 은행나무 (보호수 1호)	

19) 고평채(2011), 전주한옥마을 보전정비사업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또 한옥마을에는 전통한옥 뿐만 아니라 경기전, 풍남문, 1404년 최담 선생이 세운 별장인 한벽당, 오목대, 전동성당 등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적해 있다.

#### ▪ 사업배경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지역은 1910년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한옥을 도시조건에 맞도록 축소하거나 변형하여 건립하였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그 맥을 이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38년에는 일본의 시가지계획령에 의해 가로망 골격이 완성되었고 도시계획도 기능성과 확장성을 반영한 상태였으나 이후 교동·풍남동 일대의 도시한옥을 보존하고자 1977년부터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부터는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 지정하여 건축물의 보존이 추진되었으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향과 주민지원 대책,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의 미비로 1997년 미관지구의 폐지가 결정되어 현재는 한옥보존을 위한 법적 장치 없이 전주시의 공원주역 주변의 고도제한계획(1997)에 따라 고도지구(5층 이하)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전주한옥마을은 기존 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경기전을 비롯하여 오목대 등 다양한 역사자산뿐만 아니라 이에 바탕 한 학술적 가치와 문화정책 등의 변화로 인해 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통문화특구 기본 및 사업계획”이 1999년에 작성되었다.

2000년도에 전주시 완산구 교동, 풍남동 3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한옥마을 내 보전·정비 사업의 변화 상황

을 반영하여 2006년도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보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사업내용 및 규모

지구단위계획 보완 보고서상에 기본방향은 전통문화중심도시기반구축, 한옥마을의 균형발전 도모,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성 향상, 한옥마을과 연계한 주변의 경관정비 강화, 제도 및 지원 체계의 정비·보완과 주민참여 확대 강화로써, 한옥마을 경관 및 주요가로(은행로, 태조로 등) 활성화 및 정비 방안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부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한옥마을 내 거점 정비는 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한옥마을 전체의 면적인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대 및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조기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로관련 정비 방안으로 은행로 정비를 중심으로 기타 동문 3길 역사축 연계 정비 등이 제시하였으며, 특히 경관정비를 위해 중심가로(태조로, 은행로), 테마관광로, 민속길, 술박물관/지담 인접 골목, 토담길 등 가로별 도로폭, 담장, 대문, 가재기, 건축물, 부속건축물 등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비구역의 정비방안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로, 향교길 등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행로 및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탐방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가로는 정비하고, 테마거리로 은행로, 태조로 등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존 6m의 은행로는 12m(차도4m, 보행로8m)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보행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태조로는 양방향통행에 보도정비와 가로환경개선은 물론 전통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면서 전통공예

품을 전시하는 전시관도 함께 건립되는 내용이 추진되었다. 또 태조로에는 한옥마을 입구에 쉼터를 설치하면서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주한옥마을 은행로는 남천교에서 전주한옥생활체험관까지 이르는 약 700m가로로써 전주한옥마을에서 태조로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가로이다. 태조로와 은행로는 예산투입을 통해 한옥마을의 주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역할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장 정비와 간판정비 사업을 함께 이룬 것과 함께 보도정비와 은행로에는 인공실개천의 구성 등에서 가로 활성화와 경관 조성 내용을 유추 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주요 주체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짧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단순한 행정위주의 사업추진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의 협력 하에 사업이 추진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에 따르면 사업 초기 시 주체로 한옥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형식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구단위지정에 대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한옥보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한옥마을 보존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조직을 구축하여 사업의 심의와 자문단을 두어서 사업의 파트너이자 협력추진을 구성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은행로·태조로의 가로정비사업과 경관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주민내부에서 한옥마을 보존협의회라는 주민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되면서 수차례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의를 통한 공사 추진을 이끌어내었다. 한옥보전협의회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가로경관사업뿐만 아니라 간판정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긍정적인 공감대로 이끌어 내는데도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한옥마을보존협회의 활동은 주민들의 지역관심과 사업 추진에 대한 자발적이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참여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의견조율의 참여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주시와 한옥마을보존협의회, 자문단인 한옥마을보존위원회 3자가 동반자,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이끄는 주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경관사업 및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한옥마을조성사업이 추진되고 난 뒤에도 한옥마을보존협회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토해양부의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면서 자치적인 활동 수준을 높여 갔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를 위한 전주시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송재복, 2010). 물리적인 조성사업 이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의 존재는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으로 유지·변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사업 후 영향 및 효과

한옥보전협의회는 가로경관사업 이후에도 은행로/태조로 주변에 들어서신축이나 리모델링 건물은 은행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주민스스로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sup>20)</sup>. 사업 시행시 지구단위계획에서 다양한 가로와의 관계특성 고려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내용이다(권영상·조민선, 2011). 이러한 계획 단계에서의 평가뿐만 아니

20) 전주문화관광, <http://tour.jeonju.go.kr/board> 참고.

라 사업이후 다양한 수상도 이어졌다. 2010년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하고 2011년 한국 관광 으뜸 8대 명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전주시가 작성한 전주한옥마을 활성화 사례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가로경관조성을 통한 한옥마을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전통문화시설 유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한옥 보수와 복원이 가능했으며, 도로·주차장과 같은 각종 공공 인프라를 잘 갖추게 되면서 관광객의 유입이 보다 다양해지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지역민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며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외국인 관광객도 늘 만큼 많이 찾는 명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그림 9, 표 20와 같이 해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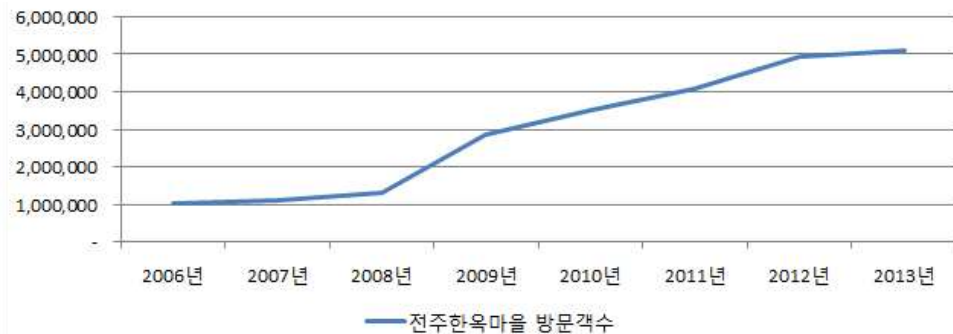


표 20 년도 별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 수

출처 : 김동영(2013), "도시 관광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 : 전주한옥마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7집(1호): 126.

단위 :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주한옥마을방문객수	1,095,760	1,306,187	2,848,961	3,500,795	4,092,451	4,932,262	5,080,000

그림 10 2005년 은행로 확장공사 전 모습



그림 11 2013년 은행로 공사 후 모습



출처 :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활성화 사례 내부 보고자료

표 21 전주 은행로/태조로 가로경관정비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전주 한옥마을 은행로·태조로·골목길 가로경관정비사업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일대
길이		은행로 : 약 700m, 태조로 : 약 550m, 기타 골목길
사업기간		2005-2007
역사자원		경기전, 오목대, 전동성당, 전통한옥 등
사업내용		보차분리, 도로 폭 확장, 가로환경정비, 간판정비, 담장정비 등
사업 단계	계획단계	1977년 한옥보존지구, 1997년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보존되면서 규제에 의한 주민민원이 끊임없이 수년간에 걸쳐 공청회, 토론회 등의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감. 2003년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한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 단위계획 지정
	시행단계	도로 폭 확장에서 불거진 문제를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설명회, 공청회, 협상, 설득작업등의 주민참여방안을 활용하여 해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은행로에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보차분리 및 인공 실개천이 설치 / 도로변 곳곳 쉼터 및 정원 설치 /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 인프라도 함께 구축 / 한옥마을 해설사 및 도우미 양성
	사업 후	주민협의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축제를 구성/실시하고 자율적 청소와 안내 해설 봉사를 하는 등 자율적인 활성화를 추구하려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사업비	총 사업비	약 190억원(국비 95억원, 도시 12.5억원, 시비 82.5억원)
	사업비 조달방법	2005년 문화관광부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 사업 지원 2007년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선정
참여주체	행정	전주시청-주민협의회 의견 수렴 및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
	전문가	한옥마을 보존위원회-도시,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으로 한옥마을사업의 시행에서 자문과 심의를 맡음
	주민	주민협의회(한옥마을 보존협의회)구성을 통해 주민내의 의견수렴 및 공공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참여. 주민들 간의 갈등/공공과의 갈등에 대한 중재역할도 함께함. 사업 이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음.
	기타협력	시민단체 전주외제21 - 한옥마을 자연환경에 대한 자문 담당
성과	수상	2010년 한국 관광의 별 수상
	기타	2011년 한국 관광의 별 8대 명소로 선정 2002년 31만명이던 관광객이 2012년 500만명으로 급증 공공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고 편리해졌다는 평가





## 8) 공주 국고개 문화의 거리

- 지역이 가진 역사자원과 사업 추진배경

공주 구도심의 국고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백제시대 효자 이복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가로로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국을 얻어 품에 안고 고개를 넘다가 국을 쏟았다고 해서 국고개라는 이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한 경우로 비가시적인 자원도 지역자원으로 활용되어 가로에 명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고개는 높이 약 10m로 비교적 낮은 고개이고 백제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공주시의 대표적인 역사가로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또, 현재 국고개 주변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도시의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공주의 근대화 발전과정에서 조성된 주거유형이 유지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공주시 전통가로를 상징성을 대별할 수 있는 역할로의 모색이 추진되었다.<sup>21)</sup>

국고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사업지 주변에는 실제 효자이복에 대한 비석을 비롯하여 역사적 근대 건축물로 인정되어 기념물로 지정된 중동성당이 있다.

표 22 조성된 가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공주 국고개)

역사문화자원분류	내용
건축물	중동성당 (충남도 기념물 제142호)
스토리텔링	옛날에 이복이라는 효자가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국을 얻어 품에 안고 고개를 넘다가 국을 쏟아서 국고개라는 명칭이 붙음
기타	(박물관)충청남도 역사박물관 (비석)효자 이복 정려비-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산7번지

21) 디지털공주문화대전, <http://gongju.grandculture.net/>, 뉴스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사업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주관으로 2008년부터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008년 25억 6000만원이 2009년 이후에 25억원이 지원되어 총사업비 50억6000만원이 소요하여 실시한 사업이다. 옥룡동 삼거리부터 구 쌍화당다방까지 1.2km에 이르는 폭 15m 내외의 국고개 가로경관조성이 이루어졌다. 건축적으로 간판정비, 건축물의 입면정비 등의 가로 정비와 담장정리, 도로포장, 옹벽설치가 이루어졌고 가로등과 경관 등을 설치하고 전선을 지중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철거 및 포장에 18억여원, 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에 5억여원 등에 26억여원을 투입하고, 정보안내판·상징조형물·효자이복비 설치·이전 등에 25억원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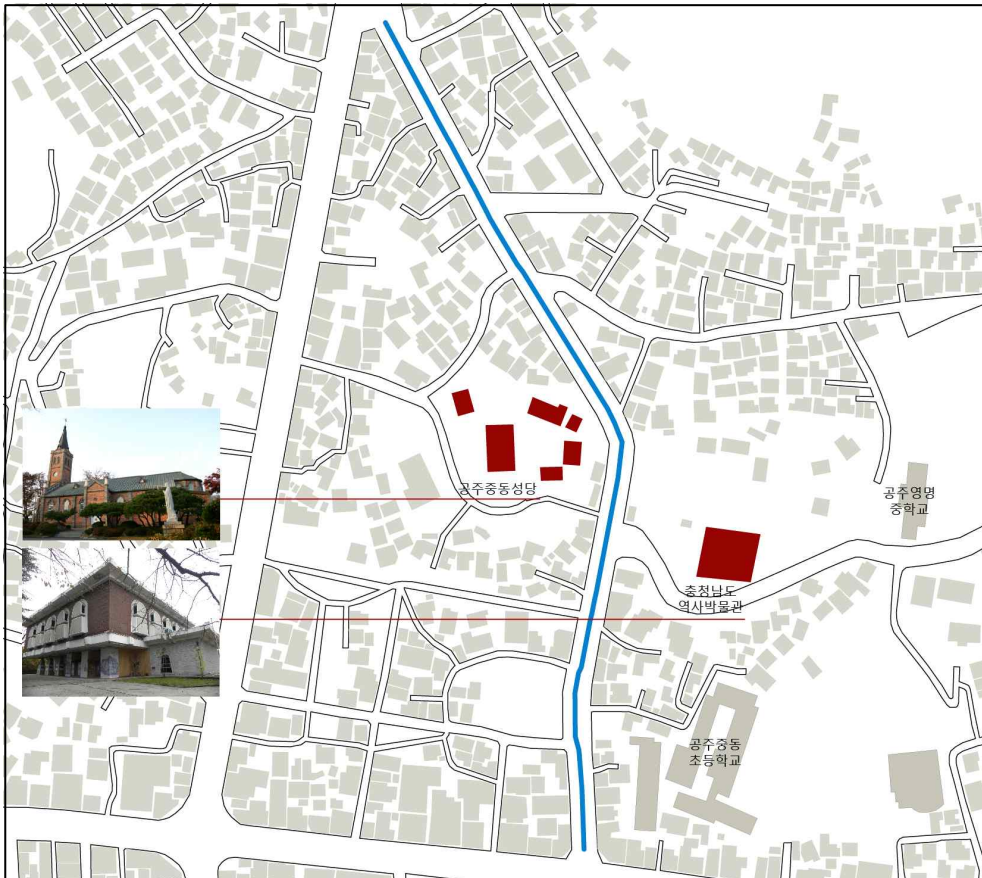
그림 13 공주 국고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종합계획도  
출처 : 특급뉴스(2008.09.20)



표 23 공주 국고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 업 명	공주 국고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국고개길 일대		
길 이	약 1.2km	사업기간	2008-2009
역사자원	백제시대 효자 이복의 이야기, 중동성당		
사업내용	간판정비, 담장정비, 도로포장, 옹벽설치, 전선 지중화, 공원설치 등		
사업비	총사업비	약 50.6억원	
참여주체	행 정 공주시청,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 주도적 사업진행		
기 타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17년까지 6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가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14 공주 국고개 문화의 거리 위치와 주변 역사자원



### 제 3 절 사업 특성 분석의 내용

#### 1) 활용된 역사문화자원

역사자산의 조성 시기는 다양하나 크게는 역사문화 자원의 분류가 전통문화자원과 근대문화자원 그리고 이것의 혼재된 지역의 역사가로 조성으로 나뉘볼 수 있다. 물론 역사의 흐름상 근대와 전통자원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지역에 위치 한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지만 사업의 주요 테마와 관련하였을 때는 다음 표 24와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표 24 활용된 역사자산의 따른 지역분류

지역	역사문화자원분류	
전주, 김해, 홍성, 공주	전통역사문화 자원 활용	(유형 - 향교, 왕릉, 고분군, 성문, 정자, 한옥군집, 나무, 비석 등) (무형 - 도시전체가 가야의 중심지(김해), 구전이야기(공주))
인천, 군산, 포항	근대역사문화 자원 활용	(유형 - 적산가옥, 공공건물, 기업건물, 탑, 사찰, 항구 등)
대구	전통-근대역사 자원의 혼합 활용	(유형 - 성당, 교회, 선교사주택, 기업건물, 읍성, 관아 등) (무형 - 소설 「마당 깊은 집」, 국채보상운동의 근거지 등)

많이 알려져 있듯 김해는 옛 금관가야의 중심지로 김해수로황릉을 비롯하여 금관가야의 집단 취락지이기도 한 봉황대 등 이와 관련된 유적지가 다수 바탕이 되었다. 김해뿐만 아니라 전주는 전주 이씨의 시조를 모시는 위패가 있음에는 물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 등 조선의 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유물, 건축물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옥 촌이 한옥마을로의 조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은행로’라는 이름의 지정에 큰 영향을 끼친 600년 된 은행나무가 한옥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홍성은 옛 홍주성 터 바로 옆 진입부에 거리가 조성되었으며, 공주는 지역자체의 백제시대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의 명칭형성에서 자산 활용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전주, 김해, 홍성 그

리고 공주의 전통적 역사자원이 거리조성의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명칭과 지역성을 나타내는 데 역사자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근대건축물이 다수 활용된 인천, 포항의 구룡포, 군산의 경우는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 밀집지역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거리 조성에서도 ‘근대’라는 특정시기를 지칭해줌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각인한 것으로 보인다.

혼합형인 대구는 과거부터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번성하던 지역으로 읍성 내에 위치한 종로와 진골목의 조선시대의 읍성으로써의 중심가로의 역할을 한 종로와 대구의 피맛골 역할을 한 진골목의 내용만으로도 그 자체의 역사성이 존재한다. 이후 근대에 이르러 대구 달성 서씨의 집성촌이자 대구의 부호들이 머물며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되기도 하면서 역사적 의미가 더 짙어졌다. 이처럼 대구 근대골목의 경우 조선시대 읍성의 중심이었던 점과 근대 역사가 어우러져 다양한 역사자원이 남겨져 활용되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사업지 주변으로는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들이 몰려있는 곳이나 옛날부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가로가 대표성을 지니고 역사문화거리로 명명되어지거나 거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로가 조성된 지역의 역사자원의 수는 표 25와 같이 나타난다. 산정에 있어 조성된 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약 500m내에 위치한 유형의 자원과 표석을 통해 터의 흔적을 나타낸 곳도 함께 포함시켰다. 전주와 포항과 같이 한옥과 적산가옥의 밀집군도 비등록 문화재이지만 그 군집만으로 역사적 자산으로 활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주와 백제는 유형 문화재 수는 적으나 수에 상관없이 지역이 기존에 가진 역사적 배경과 적은 자산 수로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25 지역별 인근 역사자원의 수

참고 : 조성된 거리의 중심에서 반경 약 500m내에 위치한 자원 수  
(문화재 지정, 문화재 비지정 건축물, 흔적(터), 유적지를 중심으로 산정)

	거리조성사업지역							
	인천	대구	포항	군산	김해	홍성	전주	공주
역사문화자원 활용 수	12	13	53	21	6	5	553	2

이러한 지역의 역사자원은 유/무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지정된 건축물과 비 지정된 건축물부터 고분군과 같은 유적지, 옛 건물이나 성곽이 있었던 터 등의 유형자산과 구전과 스토리텔링에 의한 무형자산으로 이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였다. 눈에 보이는 역사물이 아닌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도 역사거리조성에 큰 자산이 되기도 하는데 공주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기존의 국고개라는 지명의 유례인 효자 이복을 거리 명에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대구의 경우는 구전은 아니나 종로와 진골목 일대를 주 무대로 쓴 김원일 소설 「마당 깊은 집」의 내용은 그 자체로 활용되어 주인공 길남이가 활동한 곳곳이 투여화하기도 하였다. 또 사업을 통해 사업지 주변 역사자원을 개보수하여 인천의 일본제 18은행 군산지점을 근대박물관으로, 대구의 스위트주택은 선교박물관으로 새로이 탈바꿈 되었다.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새로이 활용되고 있는 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26과 같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 전시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교시설인 대구제일교회, 계산성당, 동국사, 중동성당의 경우, 용도 변경 없이 유지 보수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카페나 민박집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용된 프로그램이 전시시설로 한정되어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26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내용

지역	역사문화자원 내용	용도 변경 및 활용 내용
인천	일본영사관	중구청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	인천개항박물관
	일본우체국	중동우체국
	제물포구락부	스토리텔링박물관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카페로 활용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인천아트플랫폼의 아카이브로 사용
	청일조계지경계계단	공원과 연계
대구	대구 구 교남YMCA회관	현재 증개축 통해서 박물관으로 바뀜
	대구제일교회	용도유지(현재 보수 중)
	선교사 챔니스주택	의료박물관
	선교사 블레어주택	교육 역사박물관
	선교사 스윗즈주택	선교박물관
	구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대구 근대역사관
	대구화교협회	화교협회로 용도 유지
	경상감영공원 내 선화당	공원화
	경상감영공원 내 징청각	공원화
	서상돈고택	서상돈 생가를 새로 복원하여 관광지화 시킴
	계산 성당	유지
포항	적산가옥 51채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홍보전시관, 카페
군산	구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	군산근대미술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근대건축관
	구 군산세관 본관	일부 군산세관의 경비실로 사용
	이영춘 가옥	전시관으로 사용
	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	전시관으로 사용
	동국사	유지
전주	한옥	카페, 박물관, 전시실, 민박집 등으로 활용
공주	중동성당	유지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역사문화자원은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고 문화재의 활용과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의 시작이자 바탕으로 보인다. 가시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수에 관계 없이 다양한 지역의 유무형의 자산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2)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비 마련과 규모

투입된 사업비는 작게는 약 30억원에서부터 전주의 태조로를 포함한 가로조성을 위해 투입된 190억원까지 사업의 길이에 관계없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자금은 중앙부처의 여러 부처의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 되었다. 중앙정부 중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에 사업안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당선한 경우와 인천 월미관광특구와 같이 관광특구개발의 일환 속에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이 포함되면서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와 민자 투자까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당해 도정책의 일환으로 국비와 도비를 집중 투자를 받은 구룡포의 경우도 있다.

전체 사업에서 보여 지는 모습은 군·시에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에 매우 의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투입되는 국비의 비율에서도 시비 대비 많게는 2.3배(전주), 1.2배(군산, 홍성)가 투입되었고 적어도 동등한 비율(1:1, 포항 구룡포)을 보이고 있다.

전주의 경우는 초기 문화관광부의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전주처럼 군산과 대구도 국비지원을 받기위해 사업계획을 올려 지원을 이어 받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마다 지원하여 받은 사업비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어나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대구는 골목개선에 그쳤다가 2년 뒤 국토해양부의 공모당선으로 추가 국비를 지원받게 되자 진골목과 종로거리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닌 읍성복원사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국비의 규모와 지속적인 공모 여부 및 지자체의 사업비 투입 규모 등은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27 지역별 사업비 지원 내역과 조달방법

\* : 전체사업의 일환으로 거리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인천, 홍성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표시된 내용이 실제 거리조성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내용임.

단위 : 억원

	거리조성사업지역						
	인천	대구	포항	군산	홍성	전주	공주
도시별 총 투자비	923.5 *34.0	30.0	86.1	140.0	206.0 *30.3	190.0	50.0
중앙정부지원	108.3	15.0	37.5	75.0	100.0	95.0	25.0
광역자치단체지원	239.2	-	11.2	-	25.0	12.5	12.5
지자체부담	479.6	15.0	37.6	63.0	76.0	82.5	12.5
기타(민자)	96.4	-	-	-	5.0	-	-
조달방법	월마관광특구 사업의 일환	근대문화벨트 만들기사업당선	문화생태기반 조성사업의 일환	문화예술창작 벨트조성당선	소도읍육성 사업당선	관광자원개발사업지원/도시만들기 사업선정	공주시 자체사업
공모사업시행기관	-	국토해양부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국토해양부	-

### 3) 사업의 주체와 추진방식

모든 사업에서 공공주도의 사업진행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공 주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비 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한 군산시의 경우 지자체가 앞장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서 문화재청장과 문화부장관에게 군산을 근대문화유산의 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바탕에는 매해 시정계획에 역사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시장의 의지도 반영되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경우 군산과 김해, 포항의 경우 특별한 주민 참여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홍성의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성과 내부문서에서 거리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전 필지 보상, 담장정비 등에 대한 동의 관련으로 참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별도의 참여내용은 없으며 도로의 확장 시 개인 필지에 대한 보상에서 주민의 기본적 동의 정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초기 동의와 관련된 내용 외 사업진행 중 추가 의견에 대한 공청회나 참여기회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목상 주민 참여의 내용이다. 반면 대구는 대구시와 중구청의 주체로 사업 내용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따로 구성하여 세미나 및 도시대학 운영, 진골목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전주는 한옥마을보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업에 직접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사업의 초기부터 사업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도 운영되어 오고 있다.

또 각 지역의 문화자원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사업초기 이루어지는데 인천은 인천대학교와 인천발전 연구원에서 군산은 전북대학교와 전북발전연구원, 원광대 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가 초기 지역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 홍성은 계획안에 직접적으로 장○○교수가 MP로 참여하여 디자인 내용이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기타 여러 참여주체들이 관계되는데 그중 시민단체의 참여가 눈에 띄는 지역도 있다. 전주의 전주의제21은 은행로가 정비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하천에 대해 환경단체로써 자문의 역할을 맡았다. 특히 대구의 거리문화시민연대의 경우 대구 근대골목투어의 시초로 대구읍성과 지역 내 근대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발제안을 대구시에 발의한 역할을 하였다. 자문과 같은 조연자만의 역할이 아닌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깊이 관여하여 협력관계를 이룬 모습으로 보인다.

#### 4) 계획의 형식과 내용 분석

사업시행 형식면에서 선과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사문화거리의 조성은 국고개와 포항 구룡포, 김해처럼 거리조성의 단일 사업으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 전주와 군산의 경우는 지구/벨트가 존재하는 면과 거리조성사업의 선이 함께 존재하는 사업형식이였다.(표 28참고)

표 28 사업형식의 분류

역사문화자원분류	거리조성사업지역
단일 가로조성	인천, 포항, 김해, 홍성, 공주
벨트/지구지정과 가로조성	대구(대구근대문화벨트), 군산(근대문화벨트), 전주(한옥마을지구)

벨트나 지구지정 시 집중되어 있는 역사자원이 몰려있거나 자원의 집중적인 개보수, 박물관과 같은 신규건축 등이 이루어질 때 벨트를 지정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지정을 통해 경관과 건축물의 계획을 통제하고 주고 있다. 인천은 적벽돌로 된 근대 사업유산의 밀집된 곳이고 군산은 지역의 근대 부두, 구 조선은행, 구 세관 등이 밀집되어 이들을 패키지화시켜 문화예술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한옥마을 지구도 지구내의 한옥마을보존과 개발방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지구를 상징하는 대표거리인 태조로와 은행로의 도로환경개선 작업이 면과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 거리에 면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하였다. 거리조성사업은 거리조성뿐만 아니라 역사자원이 어떤가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면적으로 묶어서 일괄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 거리조성 사업만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는 포항 구룡포, 김해, 홍성과 같이 가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연결하여 그 대표성을 띄거나 지역의 스토리를 담아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려는 공주 국고개가 그것이다.

표 29 사업내용의 정리

		인천	대구	포항	군산	김해	홍성	전주	공주
도로 환경 정비	도로확폭					○	○	○	
	가로조명설치	○	○				○		
	바닥개선		○	○			○		○
	전선지중화					○	○		○
인프라 구축	쉼터조성		○	○				○	
	공원조성			○	○	○			○
	주차장			○	○	○			
입간판개선		○	○					○	○
건축물/유적지 개보수		○		○	○	○			
홍보관/박물관 건립				○	○			○	
해설사/도우미 양성			○		○			○	
지역축제신설		○						○	

사업 시 시행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도로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상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아닌 기존의 도로를 통한 개선사업이었다. 이러한 도로를 활용한 사업내용은 표 29와 같이 전선지중화, 도로확폭, 가로조명설치, 바닥포장개선이 있고 역사자원에 대해서 건축물의 개보수와 활용 유적지 정비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도 함께 계획되었다. 또 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나 쉼터, 공원의 설치도 함께 하려 하였으며 김해처럼 큰 강이 지나는 경우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원조성도 거리조성사업과 함께 이루어 졌다. 가로에 면해있는 근린상가와 주택지에 대해서 입간판교체 및 설치, 담장수리, 지형을 고려하여 옹벽설치 등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물리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뿐만 아니라 해설사와 같이 전문가 양성과 축제를 함께 계획하는 곳은 지역의 사업 성과와 역사를 보다 알리고 지속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표 30 지역별 조성된 역사문화거리의 길이

거리조성사업지역		길이	폭	면적(벨트/지구)
인천		약 450m	8m	약5,600m <sup>2</sup>
대구	종로	약 510m	12m	-
	진골목	약 200m	4m	
포항		약 475m	4m	-
군산	역사경관로	약 700m	12m	약15,000m <sup>2</sup>
	역사탐방로	약 640m		
김해		약 2,100m	15m	-
홍성		약 350m	15m	-
전주	은행로	약 700m	12m	약 252,300m <sup>2</sup>
	태조로	약 550m	15m	
공주		약 1,200m	15m	-

역사문화거리로 조성된 길의 길이는 대구 진골목의 약 200m부터 김해 가야의 거리 약 2,100m까지 특정하게 정해진 범위 없이 지역마다 다른 길이범위를 가지고 있다. 도로의 폭원에 있어서도 진골목의 2m부터 15m까지 다양하나 15미터 양방향 두 차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은행로는 12m폭원을 가지지만 일방통행으로 그 외는 보행로와 수로가 조성되고 홍성도 15m 두 차로 양방통행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화단과 보행로를 조성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한 폭원확대를 꾀하였다. 이들 중 대구의 진골목과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의 2~4m의 좁은 폭원으로 차량의 통행이 아닌 보행로인 경우였다. 또 조성된 길 모두가 기존의 길을 보수하는 형식이었고 김해 가야의 거리, 홍성 역사문화거리, 전주 태조로는 폭원을 15m로 증폭하면서 양방향 2차로에 보도를 확보하는 방향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길이는 지역마다 지역의 상황 따라 다르며 폭을 결정하고 계획함에 있어 보행자의 접근과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폭원을 확보하려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지방도시에서 진행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사업이 완료된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역사자원의 내용, 사업비 마련, 사업의 내용·형식·주체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활용된 역사자원에 대한 내용이다. 유형적 자산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시간대의 폭이 넓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고대 역사유산을 활용한 김해시를 제외하고는 조선시대의 성곽, 관아, 일제강점기의 근대건축물 및 산업유산, 그리고 전통가옥의 활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전주시 한옥마을과 포항 구룡포를 제외하고는 군집되어 있지 않고 일정지역에 또는 특정 가로를 따라 산재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점적으로 산재된 역사유산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스토리에 의해 주제가 담긴 공간으로 연계되고 있다. 서구에 비해 건축적 유산이 풍부하게 보존되지 않은 한국의 도시에서도 지자체의 역사와 이를 보존,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이 도시재생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업비의 규모와 출처로 사업비의 규모는 30억원에서 190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체로 수십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 이 중 약 12%~54% 중앙정부가 각종 공모사업 또는 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12.5%~25%,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일부 민간자본이 투입되지만 10%미만으로 그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천과 홍성이 전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정부의 재원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기 별도의 공모하고 여기서 당선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는 신청을 통해 가능한 많은 지원금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세 번째는 참여주체와 그 방식이다. 위와 같은 재정조달 방식은 불가피하게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공공의 주도로 진행되게 하는 구조를 가지게 한다.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발의 및 공모 신청까지 하고 여기에 따라 사업비가 마련된다. 또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사를 발주와 관리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의 성격보다는 공사 중심의 사업적 성격이고 공사의 완료 시점이 있다. 그리하여 완공을 계기로 지속적인 관광안내, 탐방안내, 축제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주도의 사업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소극적인 예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는 군산, 김해, 공주, 홍성 등이다. 최소한의 지역사회 참여로서는 역사문화거리 조성계획 수립에 지역소재 대학 교수가 계획에 참여하는 홍성과 공주와 같은 사례로 주민의 참여도는 대체로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주의 경우 관주도로 사업의 발의, 추진되는 가운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가 가장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의 유형으로 시민단체가 사업을 먼저 발의하고 이어 행정의 뒤따라 온 사례로써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주민이 지역의 자산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자발적으로 보존,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스스로의 조직과 연대, 집행의 지속성 확보 등 근린재생에 있어 보기 드

문 주민발의와 참여(community initiative)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내용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물리적 역사유산에 대한 정비, 즉 보존과 활용에 대한 것과 가로환경정비의 내용이다. 역사유산 보존의 측면에서 그 자체로 긍정적 효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노력이 공통적으로 의도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정비하고 이를 일정지역이나 가로를 따라 장소화하기 위해 지역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이 대부분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지역 언론과 면담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얻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여부를 떠나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편익,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제 4 장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요인분석

### 제 1 절 인터뷰 대상지역의 선정과 조사대상

#### 1) 인터뷰 대상지역의 선정

인터뷰 대상지역에 대한 선택에서 성공으로 지목되는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성공을 인정받은 공공기관과 기타 사업의 성공을 인정한 수상을 바탕으로 언론에서 보도되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여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상을 수여한 단체나 기관은 크게 2곳으로 정리되어 진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대한민국 경관대상, 도시대상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한국 관광의 별, 지역문화브랜드 선정이 있다. 다수가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상들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사)건축가협회에서 주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에서 매해 선정 및 수상하는 아시아 도시경관 상의 수상도 1건씩이 있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들에서 수상내역이 있으나 모든 사업지역에서 수상 시 받은 긍정적 평가내용과 실제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수상의 내용과는 별개로 지역 내에서 거리조성사업 시, 혹은 사업 이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인천은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근대문화유산과 인접 근대건축물을 정비하

면서 문화유산과 경관의 조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으며 경관설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내용이 수상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면에 다른 내용도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복원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2009년 05월 19일의 경향신문 보도에서도 역사인식 없는 건축물의 보존하고 있다 꼬집으며 근대건축물 복원이 ‘세트장’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리적인 환경개선의 도시재생 측면만이 아닌 ‘문화’, ‘관광’, ‘역사’등의 중요성과 이를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 형성 마련이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 2014년 05월 22일 인천일보보도에서도 인천 중구의 개항기 역사문화거리가 빈약하다 이야기하면서 일본 고베의 외국인 거주지와 비교하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자원의 활용과 보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포항도 비슷하게 지적되는 사항이다. 포항 구룡포의 근대문화역사거리는 2012년 11월 일본가옥을 지역의 경관적 자산으로 재조명하고 특색 있는 가로로 조성한 점과 역사적 흔적을 경관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이후 보도되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평가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2013년 09월 26일 뉴 시스에서 2가지 관련 기사를 동시에 내면서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가 역사적인 고증 없이 영터리로 조성됐다는 논란이 있다고 한다. 일본인거리로 만들었지만 한국형 미장원건물과 한국식 분식가게가 들어서 있으며 일본식 가옥도 결만 일본풍이지 들어가면 한국식이며 일본식 전통 바닥인 ‘다다미’도 포항시가 돈이 든다며 일반 장판을 깔아 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4년 08월 14일 새전북신문의 전북발전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보도된 바 있다. 또 여기서는 포항과 군산의 관 중심의 추진체계로 주민참여에 대

한 미비가 추후 지역의 자생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하고 있다. 참여적 내용에 대한 아쉬움은 김해도 마찬가지였다. 수상 이유에서 보이듯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가로에 담으려한 움직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부분, 주민참여, 높은 수준의 역사적 고증 등에서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주의 경우는 2010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주민참여와 공공과의 협력의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지역임이 김진석(2005), 송재복(2010)등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주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또 여러 매체들에서 관광객의 증가를 언급하며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음을 기사화 하고 있다. 주민참여와 같은 협력적 모습뿐만 아닌 2012년 03월 21일 정책브리핑과 2013년 10월 16일 내일신문에서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적 측면에서도 지역적 특색과 한옥이라는 전통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관광객증가와 같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관광객 수가 증가(그림 9, 표 20참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성공적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직접 사실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음이 보여졌다.

대구는 많은 수상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참여와 발의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거리문화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골목투어를 처음 시작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 사업의 발의나 시작이 하향적인 성향이 강한 면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모습은 최근 추구하는 상향적 모습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적 모습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주관의 상 뿐만 아닌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에서 매해 선정 및 수상하는 아시아 도시경관 상 등 8개의 상을 받으며 근대골목조성에 대한 정비사업, 관광자

그림 15 대구 근대골목투어 투어객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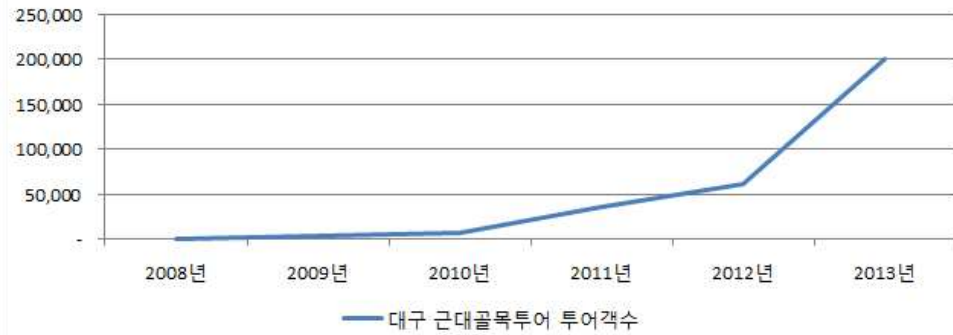


표 31 년도 별 대구 근대골목투어 투어객 수

출처 : 중구청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 참고.

단위 :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구 근대골목투어 투어객수	287	3,019	6,859	35,654	62,199	200,533

원화, 지역 활성화의 내용으로 성공을 인정받아 수상 받았다. 실제 사업이 진행된 종로와 진골목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리투어의 관광객 증가(그림 15, 표 31참고)로도 사업의 성공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최근 상향적 도시재생의 움직임은 앞서 살펴본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원칙 속에서도 나타나며 대구와 전주는 이러한 면에서 참여적 방향과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수상과 긍정적 평가들을 바탕으로 두 지역을 성공 사례로 정하여 직접관찰과 면담조사를 통해 논의되는 원칙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수 조사 중 나타난 흥성의 역사문화거리의 경우 수상실적이 없음은 물론이며 조성된 길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제 지역의 상황을 보고 원성을 사는 이유를 확인하여 앞으로 사업에서의 시사점을 성공요인과 반대로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 2) 조사의 대상과 내용

### (1) 조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공·실패지역의 참여주체와 일반 주민/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 방법을 통해 성공요인을 얻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선방향, 문제점 등 기타의견에 대해서도 듣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1명 또는 소수의 서로 관련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고찰된 원칙을 바탕으로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질문뿐만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가 자유롭게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전달해주고자 하는 개인 소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과 수기를 바탕으로 기록하고 이후 전체내용을 분석하였다.

인터뷰를 실행하는데 대상의 선정은 연구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한 주체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참여주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사전에 전화와 메일을 통한 연락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 사업의 참여 여부와 도시재생에서 지역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지역상인·주민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현지 주민 혹은 상인임을 확인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는 대구시의 경우에는 2014년 08월 14일부터 08월 16일, 전주시의 경우에는 2014년 08월 06일부터 08월 08일, 홍성의 경우 2014년 07월 29일부터 07월 30일에 사례지역별로 연구자가 직접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표 32 심층 인터뷰 참여자 구성내용

지역	유형	연령대	성별	응답자코드	응답자 상세내용
대구	공공기관	50대	남	D-1	대구 중구청 관광개발과
		50대	여	D-2	대구 중구청 거리해설사
		40대	여	D-3	대구 중구청 공원안내센터
	지역단체	40대	남	D-4	(구)거리문화시민연대
		70대	남	D-5	화교협회 담당자
	지역상인	50대	여	D-6	○○원(상인회 회원)
		20대	여	D-7	○○갈비 직원
		20대	여	D-8	○○커피 종로점 점원
		60대	남	D-9	○○상회(상인회 회원)
전주	공공기관	50대	남	J-1	전주시청 도로과
	지역단체	50대	남	J-2	전주전통한지원 이사
		30대	여	J-3	전주한지지원센터 실장
		60대	남	J-4	한옥마을보존협의회 회장
	지역주민	50대	남	J-5	-
		30대	남	J-6	-
홍성	공공기관	50대	남	H-1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50대	남	H-2	홍성군청 문화예술과
	지역단체	60대	남	H-3	홍성문화원 원장
		50대	남	H-4	내포문화관광진흥원 원장
		60대	남	H-5	상설시장변영회 전(前)회장
	지역언론	40대	남	H-6	홍성신문 기자
	지역상인	60대	남	H-7	상설시장 ○○상회
		50대	여	H-8	○○세탁
		60대	남	H-9	○○마트
		50대	남	H-10	○○문구
	지역주민	50대	남	H-11	-

표 32은 해당하는 설문대상자의 일반특성이다. 대구시의 경우 사업에 직접 참여한 2명(D-1, D-4)과 기타(주민, 상인, 해설사 등) 7명이 응답에 참여하였고 전주시는 사업에 참여한 2명(J-3, J-4)과 기타(주민, 상인, 지역단체 등)4명이 참여하였다. 홍성군은 사업에 직접 참여한 4명

(H-2, H-3, H-4, H-5)과 기타(지역 언론, 주민, 상인 등)7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세 곳의 대상지역에서 총 26명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적은 이유는 사업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사업 종료 이후 자리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 이유로 작용하였다. 또 평일 주간시간에 방문하여 조사가 진행되어 장년층의 응답자가 많았다.

## (2) 조사의 내용과 분석절차

심층 인터뷰를 위한 질문의 구성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전에 설정한 성공의 원칙 틀을 중심으로 실제 사업의 성공에 원칙이 적용 혹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터뷰에서는 먼저 현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와 해당 사업의 과정 혹은 의견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입장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인터뷰 내용의 분석을 위해 단계별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 중에 기록한 내용과 녹취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문서화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응답자들이 말하는 성공요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언급한 개선방안과 추가로 사업지에 요구되어지는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 제 2 절 인터뷰 분석

### 1) 사업의 성공여부

성공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나타나는 응답자들의 반응은 명확한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보다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더 나아졌다는 형식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시적인 환경개선에 있어서의 표현과 사람들의 유입의 증가를 예로 들고 있었다.

[D-7, 지역상인] 길이 이 정도면 성공적인 것 아닌가요? 잘된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돈을 얼마나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더러웠어요. 간판들도 다들 낡고 허름했고요. 사람들도 잘 안 왔었어요. 지금은 용 됐죠.

[D-8, 지역상인] 성공했다고 하니깐 사장님도 이런 거(카페) 차린 거 아닐까요. 원래 여기 이런 커피 집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다 한약재 상들만 있고 간간히 음식점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커피집이랑 음식점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동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닐까요.

먼저, 대구의 두 응답자는 거리 조성당시의 시행한 간판개선사업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언급하면서 “용 됐다”는 표현으로 사업이 성공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D-8의 경우 최근 변화하는 상권 내 움직임은 보아 지역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인터뷰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다.

[J-2, 지역단체] 태조로랑 은행로는 한옥마을의 중심이에요. (중략) 거긴 지금이나 옛날이나 중심이에요. 길도 잘 해놔야 되죠. 얼굴인데요. 관광객이 들어오는 곳인데 얼굴이죠, 거긴 또 다른 데랑 다르게 건물이 2층까지 지을 수 있게 했어요. 옛날엔 거리가 지지분했는데 지금은 깔끔해졌잖아요. 좋아진 거죠.

[J-5, 지역주민] 사람이 그만큼 모여든다는 건 그만큼 발전이 됐다는 거니깐요. 예전에는 개발을 못하게 묶어놨다가 개발을 하니깐 효과가 나는 거죠.(중략) 그리고 가게들 가 봐요. 웬만한 먹을거리 있는 데는 다 줄서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7m이상씩 다 줄서 있



어요. 장사도 엄청 잘 되요. 우리나라에 1년에 500만 관광객이 오는 데가 제주도인데 그렇게 넘기까지 꽤 걸렸네요. 전주는 금방 넘었죠.

J-2는 D-7의 응답처럼 가로환경개선효과를 언급하며 지역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J-5의 경우도 사람의 유입과 지역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사업에 직접 관여하였던 D-4의 인터뷰에서 지역 성공에 대한 생각과 그 시점,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들어 볼 수 있었다.

[D-4, 지역단체] 성공의 시점은 일단 내부참여자나 이해관계자, 마니아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 익명의 시민들이 이 지역을 방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2010년이더라고요. 이제 자리를 잡는구나했죠. 보통 카페가 오픈하고 나면 아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1년이 지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걸 성공했다 하는 것처럼 성공했다는 표현이라는 게 그냥 시민들이 동의하는 보편적 단어죠. '잘해냈네', '괜찮네', 하는 표현이죠. 지역에서 잘 안하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이 주는 표현이 있거든요 '고생하네', '특이한 거 하네' 하다가 보편적 지지를 받게 되면 그때는 '참 잘했더라.', '진작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누게 되는 시기가 사람들이 편승하는 시기와 같다고 봐요. 사람들이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에너지가 뭉치기 때문에 근대골목이 성공해서 근대골목에서 또 다른 성공자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작가들도 여기에서 어떤 것을 개발한다던지 청년 개발자들이 새로운 여행상품을 계획한다던가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편승이고 이런 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것을 도모하는 시기이기에 성공이라 보는 거죠.

실제 지역 내에서 상인과 주민의 인터뷰에 사용되는 표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확신적인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며 단정 짓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의 생각이 담긴 표현으로 사업 후 지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용 됐다.’, ‘예전에 비해 사람이 많이 온다.’, ‘잘됐다.’, ‘갈끔하다.’, ‘좋아졌다.’ 등이 그러하다. D-4의 표현과 같이 성공을 표현하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동의와 지지 형식의 표현으로 보인다.

## 2) 성공요인 분석

### (1) 지방도시의 성격과 역사자원성

대구는 여러 역사적 사건 속에 남겨진 대구의 다양한 역사자원들이 남아있어 사업 실현의 바탕이 되었다. 특히 근대역사자원이 큰 훼손없이 잘 간직하고 있다.

[D-2, 공공기관] 대구 근대골목이 유명하게 된 거에는 근대 것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6·25때 북한군들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대구를 기점으로 더 이상 못 내려오고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된 거죠. 다른 지역의 근대 것들은 6·25때 많이 파괴 됐어요. 부서지고 불타고 해서 새로 복원을 하였거나 새것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대구는 그때 그대로 있잖아요. 고스란히 냄새자체도 녹아 있죠. 예전모습이 다 남아 있어서 이 자체가 중요하고 이 길이 유명하게 된 이유죠. 대구가 정말 유명한 많은 우리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공원을 시켜버리고 바꿔버리고 해서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때 바뀐 것을 복원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달성공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요즘 역사가 중요하다보니 많이 와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르신 분들도 많이 와요.

이어서 D-4는 남겨진 역사자산에 대해서 발굴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아카이브 작업과 문화재의 연결 과정이다. 발굴된 자산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의 경우는 단일한 사업에만 치중된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작업으로 지속가능성과 연결되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작업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업의 바탕에 축적되어진 기록이 존재하고 그 속에 가로조성사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고스란히 남겨진 역사자원 만큼이나 이를 발굴하고 활용으로 이어져야 하며 가로가 결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D-4를 통해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함께 아카이브 구축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 지역단체, 지역소재 대학, 향토사학자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나아가 작업을 해온 지역의 노력을 발굴하고 결집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16 초기 아카이브 작업내용

출처 : 이왕건·박태선·박정은·류태하·이유리(2011): 106.



[D-4, 지역단체] 여기 작업을 하는데 중요했고 또 계속 꾸준히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도시 아카이브예요. 과거의 이 도시의 선형적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또 다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장소치환 바로 그냥 재개발이예요. 과거 활동, 사실이 뭔지 이해하고 연구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창조도시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간단한 과정을 그 어떤 도시도 오랜 기간 동안 해온 도시를 보질 못했죠. 섹트화 된 지성인들이 모여야 하는 거죠. 건축이면 건축, 근데 그 가운데서 코디네이터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해야 해요. 증명화 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장애인이지 않아요. 전공화 된 지식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요즘시대와 맞지 않아요. 도시를 탐색하고 산책하고 도시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가진 보편적 시각에서 도시를 바라봐줘야 도시가 유니버설해지지 아니면 특정한 전공에 매몰되어 버리죠. (중략) 그래서 아카이브는 한번 구축이 되면 시장이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카이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 거예요. 실측하고 정보구축하고, 지도 만들고 시대별로 어떤 활동이 있어왔는지 보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어떤 프로젝트 하기 전에 선행으로 하는 지성으로 축적하는 활동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선형적인 연구 과정을 재해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죠. 상식적인데 아무도 안하죠. 대부분의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 프로젝트 기간에서 불충분하게 마무리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연구자들이 다음 연구를 위해 바라보면 대부분 쓸모없게 되거든요. 토대연구, 뭘 하더라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토대 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점이라 보죠.

아카이브의 구축에는 역사, 건축, 도시등과는 무관한 비전공자들도 참여하였으며 도시의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또 단발적 행위로 여기지 않고 다음세대를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행해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카이브화 된 지역의 역사자원은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졌다. 스토리텔링의 주 내용은 D-2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D-2와 D-4를 통해 풍부한 역사자원 속에 이야기가 입혀지면서 지역을 이해하고 시민의 관심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었음이 나타나 있다. 또 근대골목이 더욱 다채로워지게 된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작업에는 대구 중구청은 물론 지역의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하였음이 나타난다.

[D-4, 지역단체] 지도그리기 방식을 통해서 저희만의 지성을 축적해왔던 거죠. 지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 문자화 되지 않은 도시를 지도화하는 방식으로 응축시켰고 지도를 만들게 되니 자연스럽게 지도가 정보를 받는 방식이잖아요. 동선의 결과가 지도인데 지도가 또 다른 동선을 만들어 낸 거죠. 그러진 지도를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생겼고 그게 골목투어, 걷기로 이어졌죠. 그러다가 2007년까지 대구 시민 1%참여를 목표로 잡았어요. 25000명이죠. 그 정도 안내를 하면 대구라는 도시가 좀 바뀌지 않을까 나름대로 시민단체니깐 그런 목표를 가졌죠. 그러다보니 단순한 걷기운동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했던 거죠. 그때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결국 스토리텔링인 게 생겼죠. 저희가 시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문자화 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어떤 지역사나 향토에 대한 이야기들이 텍스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콜로큐라는 방식으로 바로 피드백이 되었죠. 골목투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매력이 그거라고 봐요. 문화유산 해설사는 아시잖아요. 이미 문자화된 형태로 정해진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골목문화해설사는 유동적이죠. 코스를 자기가 정하고 자기 눈에 비춰진 도시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훨씬 지금 세대와 맞다고 보는 거죠. 우리스타일이다. 최근 도시 여행이 여행가는 장소에 대한 감흥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에 가장 빠르게 작용했던 거죠. (중략) 시민들이 어떤 도시적 지식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러니깐 구도심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죠. 그리고 대구의 원래 아이덴티티를 가진 공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깐 사람들의 욕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장소의 지속가능성을 욕심내게 되는 거죠. 경관사업, 재생사업을 하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된 거죠. 저는 도시적 이해가 여기 바탕이 됐다고 보죠.

[D-2, 공공기관] 중구청에서 관계자 분들이 옛날의 고증을 거쳐서 발굴을 한거죠. 그러다보니 여기 풍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진골목의 명품골목으로 발전되게 한데

결정적이 된 거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피맛골은 조선시대 때 이야기이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영남지방은 물론이고 달성서씨 가문이 유명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자기만이 잘산 것이 아니고 서상돈선생님의 국채보상운동부터 많은 땅을 가톨릭에 다 기증을 하셨죠. 달성 서씨 가문이 진골목에 전부 거주하셨죠. 정소아과도 서병국씨 집이었거든요. 그 골목이 명문 골목이 된 거죠. 그러다보니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그 골목으로 모이고 화교협회도 서병원씨 자택이었고요. 송정식당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거기가 바로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생가예요. 그런 분들이 태어나고 명문가들이 있었던 곳이다 보니 스토리가 되겠다 한거죠. 또 명문 골목이 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정도 여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최초로 여성운동이 일어났죠. 기생뿐만 아니라 부잣집 마나님들도 패물, 보물을 많이 내어서 국채보상여성운동이 일어난 거죠. 자기들만 잘살려고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잘살려고 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된 곳이죠. 또 이런 스토리뿐만 아니라 김원일 씨의 '마당 깊은 집' 주 무대가 바로 여기 골목길이에요. 굉장히 실감나게 적었어요. 자기 자전적 소설이에요 작가가 주인공 길남이로 등장해서 6·25때 대구로 오면서 어머니가 샅바느질 하는 일을 하니 가난한 사람이 부자동네 여기 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와놓으니 부잣집, 기생들 대상으로 일하다 보니 여기 산거죠. 거기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소설 속에 다 그대로 녹아있어요. 그러니깐 골목 속에 다 녹아 있다 봐야죠. 종로에 화교협회 앞 소년 동상 있죠? 그게 바로 김원일이예요. 신문이 있는데 길남이가 신문 배달하거든요 거기서 자신이 꿈을 꾸는 소년으로 비춰졌어요. 바로 그 모습이죠. 동상들이 그래서 다 마당 깊은 집 배경으로 세워진 거예요. 마당 깊은 집 배경에 정소아과, 중국집이 다 등장하죠. 마당 깊은 집이 마당이 넓은 집을 말하거든요 위에 주인집 문간방에 세 들어서 피난민들이 살았죠. 대구에는 그때 피난민들이 많았어요. 진골목이야기 하다가 별 이야기 하다죠? 이렇게 진골목의 스토리가 엄청 풍부해요.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김원일 소설, 많이 우리 근대역사까지 지금도 간에 요정이라고 요정이 있어요. 요정박물관도 있고요.

[D-1, 공공기관] 이런 가로환경정비나 공공개선사업이 잘 되었던 것은 꾸러미들을 잘 연결하려 했던 거죠. 일단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했고 문화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고 물론 대구에 점, 점, 점 있었던 문화재 그자체도 아주 중요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쪽 쪽 연결하는 과정도 신경 써서 했죠.

특히 여기서 눈여겨 볼 내용은 지역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내발성'이다. 대구는 D-4가 표현하는 '내발성'은 공공의 의도로 발발된 것이 아닌 지역 내적인 욕구가 발의의 근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내발성에는 여러

키워드 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민발의, 시민주도, 상향적, 자발성 등이다. 도시를 바꾸고 알게 된 지역의 도시 자원을 나타내기 위한 욕심은 유형적인 실체로 구현되고 이때 시민의 의견이 녹아 있는 자발적으로 개선의지를 나타내고 이어가는 것이 결국 진정성 있는 도시재생인 것이다. D-4는 이것이 대구 도시재생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의 바탕임을 말하고 있다. 시민의 커뮤니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에서도 그 진정성이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다. 실제 대구는 거리문화시민단체에서 근대골목투어를 시작하고 ‘신택리지’와 같은 대구역사서를 발간하면서 근대골목을 알리는 개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D-4가 2014년 03월 08일에 실린 한 매체와의 인터뷰<sup>22)</sup>에서 보여지듯 시민단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지고 있다.

[D-4, 지역단체] 도시를 걷게 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도시지식을 공유하게 되니깐 사람들이 도시적 욕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욕심의 근간은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요구죠. 그런 것들이 역사도시의 중요한 키워드이죠. 그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되느냐는 장소구현, 장소 만들기, 장소보존으로서 되는 거죠. 보존되면 구현을 통해서 장소 만들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내발적 도시재생이라 보는 거죠. 한국에 도시사회는 외발적 도시 사회잖아요. 그 부분에서 대구는 저항하고 제가 저항하고 있는 점이죠. 저항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시작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프로젝트에 강점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지자체가 주도하지 않고 최초로 창안한 시민들이 커뮤니티가 살아있고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든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만들어지다 보니 지금은 시스템이 커져서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살아 있는 거죠.

이러한 대구의 내발적 성격은 여러 역사적 사건 속에 남겨진 대구의 다양한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특히 시민단체와 같이 지역 사회가 참여되는 밑거름이 되었음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

22) 매일신문(2014.03.08), 대구 ‘근대골목투어’ 최초 기획자 권상구 이사 인터뷰 참고.

발전에 대한 진정성으로 이어져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적 성격에 대해서도 말하는 의사결정 형식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만 하다. 내륙적인 의사결정방식이라 말하는 이것은 지역의 커뮤니티 속에서 합리적·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D-4, 지역단체] 대구처럼 하는 방식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따라는 데는 있어요. 마산창동이 대놓고 따라하죠. 대구 것을 카피하겠다고 하고 골목투어, 해설사, 창동운동을 했죠. (중략) 인천은 커뮤니티가 완전 광이잖아요.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구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대구는 한번 합의를 하거나 consensus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중략) 대구사람들은 알겠지만 의리 있고 좀 대륙적인 기질이 있고... 내륙지역이지만 대륙성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스케일이 크고 합의하는 방식이 짧아요. 경상도 표현으로 '됐다?'하면 '됐다.'하는 합의 방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합의는 정서적 합의거든요. 그때 계산적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경기도 권은 계산적 합의가 민감한 지역이죠. 이쪽(대구)은 계산은 이미 다 한 거고 그 모든 합의의 귀결이 정서에 있는 거예요. 우애, 의리, 속정 이런 게 되다 보니 비즈니스가 되게 잘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전주에서도 지역 자체에서 가진 역사적 배경과 그 자원성이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전주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지 임과 동시에 현재도 그와 관련된 이석과 같은 인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통한옥지역이라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인터뷰를 했던 주민과 단체에서 J-4와 비슷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고 여기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깔려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J-4는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늦어지면서 침체기를 겪었지만 과거를 간직하고 있었기에 한옥마을로의 개발에 발판이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U-4, 지역단체] 여기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할아버지 목조 이한사공이 탄생한 곳이기도 해요. 이석선생도 타지에서 생활하시다가 전주가 우리조상의 고향이니 타 도시에서

오라는 말을 무시하고 전주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그런 왕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명사 예술가들이 한옥마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으므로 한옥마을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해요. (중략) 예전부터 공자의 사상이 많이 배여있는 지역이 전주예요. 전주사람들 자체가 유학과 전통에 바탕이 되어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바탕들이 한옥전통마을도 조성할 수 있었다 보구요. 지역민들의 자부심도 남달라요. 도읍지였었고, 조선의 모태로써 500여 년 동안 알려져 왔었고 사람들이 매우 자부심 있다 할 수 있죠. 위상이 높았어요. 근대에 오면서 1920년에 전라선이 전주를 거쳐서 목포를 가게 열차역이 설계되었었는데, 전주에 양반들이 죽기로 결사반대를 했데요. 그래서 익산으로 바뀌었어요. 선비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자연그대로의 것, 자연 순리 이런 것들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때 전주역이 생기고 했으면 큰 도시가 되고 벌써 광역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스스로가 신문물을 못 받아들이고 옛날 것만 가지고 한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또 이제는 옛날 거를 고수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죠.

실제 전주한옥마을은 현재까지 약 995가구 2,202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면서 이들 가구 중 500여체가 넘는 건물이 한옥으로 현재까지 남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옥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지정된 역사문화유적지가 경기전을 비롯하여 전주향교, 오목대 등이 남아 있다. 한옥마을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건축물, 유적지가 바탕이 되었다. 또 마을이 조성되면서 전통문화관, 전통한지원 등과 같은 전통문화시설이 건립도 지역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흥성은 기존에 가진 역사자원을 상당부분 유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성되어진 역사문화거리 옆의 흥주성터와 그 성내 관아 건물 등은 상당량 사라지고 현재 이에 대한 복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라진 전부에 대해 완벽한 복원이 어려워 보인다.

[H-3, 지역단체]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조양문 앞에 위치한 KT건물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요. (KT건물 지을 당시)그땐 우리 지역이 문화유적 보호나 보존, 역사문화시설, 역사문화의 도시 이런 것들에 의식이 없었을 때였기도 했죠. (중략) 시간이 다 흘러서 지금 좀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깐 역사도 찾고 문화도 찾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경찰서 부지에도 옛날 목조로 된 관아 건물이 있었어요. KT건물도 원래 우체국 자리예요.



홍성 우체국 자린데 우체국 건물이 옛날 관아 건물이었거든요. 목조로 된.... 이런 건물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다 뜯어내 버렸어요! 이제 관아 건물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군청 뒤에 하나랑 그 위에 여화정하고 홍주문하고 만 남아있어요. 그 많던 관아 건물들을 다 뜯어 내버렸어요. 이제는 다 짓지도 못해요. 그걸 언제 다 복원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중략) 그래서 지금 현재상태의 '역사문화의 거리'는 실패죠. '역사문화의 거리' 다운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 뭐가 없잖아요. 볼게 있어야 사람이 오죠.

인터뷰 당시 H-3는 아쉬움과 착잡함, 씁쓸함을 강한 어조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그만큼 사라진 역사자산이 많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복원의 어려움이 함께 함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역사유산의 존폐에는 지역이 당시 가졌던 의식과 경제 사정이 크게 작용했음이 보인다. 따라서 당시 홍성의 지역 논리로는 지역의 역사성보다 지역 발전과 경제논리가 우선 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거리 조성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자산의 부족이 역사문화거리 조성의 의미와 근거를 무색하게 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어서 H-3은 지역 주민의 의식의 변화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주민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은 도청이전으로 생겨진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구도심에 우려되는 공동화 현상과 구도심이 역사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갈등을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H-3, 지역단체]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반드시 바뀌어야 해요. 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어야 해요. 우리 군청이 이전하고 이런 과정에 아마 1-2년 정도는 공동화가 올 수도 있어요. 각오해야죠. 앞으로 더 좋은 시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지역주민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지방비가지고는 언제 끝날지 모르죠.

## (2) 사업추진방식

### ▪ 공공의 역할

실제 공공은 사업을 이끄는 주체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공기관이 아닌 주민과 지역단체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도 그 역할이 컸음을 볼 수 있다. 전주의 J-3와 J-4의 내용이 그러하다. 시장의 추진력과 사업비 마련에서 공공이 큰 역할을 하고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도 직접 관여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다.

[J-3, 지역단체] 공무원들이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웃음).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 전전 시장(김완주 시장)때부터 시작해서 공공에서 먼저 나서서 했어요. 정부에서 자금을 따와서 처음에는 개보수하면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었어요. 담벼락이랑 자기 집을 스스로 알아서 개보수를 하면 초창기에는 1억을 보조해주고 나중에는 점점 5천, 다음에는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보조를 해줬어요. (중략) 좀 정보 빠르고 그런 사람들은 먼저 돈 잘 받아서 잘 수리했죠.

[J-4, 지역단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안돼서 낙후는 낙후 데로 심해졌죠. 한옥마을은 30년 넘게 묶어만 놓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보니 우리 자치적으로 서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샘솟은 거죠. 신시가지 우선정책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옥마을은 뒷전이었죠. 예전엔 셋집도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여기에 마지막까지 남은사람들은 어찌됐건 살아보자는 마음에서 발단이 되었죠. 특히 이걸 준비했던 김완주시장도 도저히 안 되겠다 했던 거죠. 풍남동 교동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로운 각도로 시도를 해서 아주 바뀌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했어요. 김완주 시장부터 송하진 시장 때에도 계속 한옥마을에 투자를 해줬죠.

위 인터뷰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 사업비는 사업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며 여기서 공무원의 역할이 사업비 마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D-6에서 사업비의 투입이 결과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상가와 주택의 정비도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가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말하고 있다. 환경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는 중앙

정부와 시·군 예산 등을 토대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마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물리적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D-6, 지역상인] 돈이 투자되고 했으니 잘 된 거죠. 중구청에서 그렇게 돈 투자 안했으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런 길에 누가 오겠어요. 개인이 돈 들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걸 다 중구청에서 다 해주거예요. 시비가 엄청 들었지 싶어요. 문 한 짝도 고급으로 다 원하는 것으로 했죠. '전통/현대스타일이 이런 이런 게 있다.', '이런 스타일, 이런 재질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간판, 문 등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주민이나 상인이 골랐죠. 개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죠. 골목과 접해있는 쪽은 다 돈을 투자해서 해줬죠.

[D-9, 지역상인] 구청에서 다해줬어요. 돈 많이 썼죠. 우리 간판도 구청에서 해준 거예요. 뭐 많이 했어요. 하고나니 여기 바닥 이런데도 깨끗해 졌잖아요.

[D-3, 공공기관] 성공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데요. 구청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감영공원조성하고 복원하고 하는데도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거 있는 줄 알지 안 그랬으면 여기가 뭐였는지 알았겠어요? 돈을 부은 만큼 사람들도 많이 오고 대구도 더 살만해지고 그런 거 같아요.

이러한 사업비와 공공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속에 홍성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투입 또한 중요하다 밝히고 있다. 사업비가 사업량을 결정하고 있다는 언급 이면에는 조성되어진 역사문화거리에 접한 홍주성의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함이 담겨 있다.

[H-2, 공공기관]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예요. 사업비가 가장 중요하죠. 다 사업비예요. 군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역할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비가 가장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일 년에 얼마를 투입하느냐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니까.. 물론 정권 바뀌고 시장 바뀌고 하면 의지도 바뀌고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기도 하니깐 다음 시장/군수의 의지도 중요하죠. 원래 이런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해요. 국가지원 70%, 도비15%, 군비15%로 진행해요. 사업의 중요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봐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사업비도 따고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죠. 조금씩 받아서 길도 만들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문화재도 보수하고 하죠.

[H-3, 지역단체] 모든 게 다 중요해요. 흥성이 역사문화도시로 가꿔야한다.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야죠. 근데 홍주성 성역화사업을 시작한지가 98년도부터예요. 그때부터 흥성군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서 문화재청, 국비요청하고 뭐 한 몇 십억 사업비 보내죠. 그럼 실제 지방에서는 땅 사서 철거하고 그러면 돈이 금방 없어져요. 그럼 1년 지나버리죠. 다음해에는 이러저러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죠. 흥성 같은 역사문화도시를 제대로 홍주성 복원도하고 하려면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해요. 역사시설복원도 시급해요. 왜? 이걸 지금 복원하는 거 하고 20년 후에 복원하는 거 하고 투자가 달라요. 자꾸 훼손되거든요. 하루 빨리 복원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해요.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필요하구요.

다음으로 전주시청에서는 현재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여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였지만 실제 대구는 사업에 참여하였던 공무원이 남아 있어 당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역할을 중구청에서 했음이 나타났다. 초기 소극적인 참여를 보였던 시민이 공공의 노력을 통해 이끌어졌던 내용이 그것이다. 또 D-4에서 보여지듯 물리적 개선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확실히 컸음이 보여지면서 여기에 뒤에 나올 참여적인 작업으로 시민단체와 협업도 함께 했다는 것이 유추 될 수 있다.

[D-1, 공공기관] 이런 가로환경정비나 공공개선사업이 잘 되었던 것은 꾸러미들을 잘 연결하려 했던 거죠. (중략) 거기서 우리(공공)는 공부하고 민을 고집어내는 역할도 해야 했어요. 보통 민은 항상 보면 수동적이예요.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도 않고 모르기도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알리기도 해야 하고 복잡하죠. 사람들의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다 관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관이 막 지시하고 억누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지시한다고 누가 말을 듣습니까? 달래기도 하고 찾아가고 그러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구요.

[D-4, 지역단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software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사업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물리적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콘텐츠는 저희가 잡으면 되니깐요.

반면 주민참여는 미미하게 나타난 흥성에서는 H-3, H-4와의 인터뷰

에서 사업의 계획을 총괄하는 MP선정과 공무원과의 관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이어서 공무원의 인식을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의 진행에 있어 지역을 잘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수반되어야 함이 보인다.

[H-3, 지역단체] 그때 당시에 '가로 화단 만들지 말자.', '도로 폭을 10m만들자. 인도가 없더라도 10m만들자. 그래서 역사문화거리답게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라도 문화집회 행사 같은 것도 한번해보고 하자.'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교수의 이론인지 학술적인 면지는 모르겠지만 넓힐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왜 그러냐!', '여기 도로 넓혀봐야 불법주정차나 하고 별 필요가 없다. 차 통행만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무슨 역사문화거리의 거리냐! 안 된다 넓혀라. 난 동의 못한다.' 뭐 그런 말들을 했지만 교수의 이론에 공무원들이 밀착되어있고 하니깐 다른 주장들이 묻히더라고요. (중략) 도시계획이나 지역 개발 사업 이런 거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많이 주죠. 이런 사업도 다 교수 자문 용역에서 나오는 건데 지역 실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예요. 교수가 유럽 가서 좋았던 감정 그 느낌만 가지고 여기다 접목시켜서 시험해 본 거예요! 홍성에 시험해버리는 바람에 홍성이 망했어요! 여기 민원이 엄청 많이 생겨요. 왜? 이 주변 사람들은 저녁 되면 잠도 못자요!

[H-4, 지역단체] 공무원들이 욕할지도 모르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이 문제예요. 자기들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올려요. (중략) 이게 지역에서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켜야하는데 딱 타 지역이랑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차별성이 없잖아요.(중략) 홍성은 맨날 기존거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창의성이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변화를 하질 못하는 거죠. 지역의 전문가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쓴 소리를 하니깐 그런 말 한다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대로 '잘했어 잘했어'하는 사람들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걸 '잘했어요.'하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중략) 홍성은 홍성과 관련된 사람이 자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수라는 사람들이 지역의 텃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지역에 적응이 안됐는데 자기가 외국에가 본 것만 가지고는 이거해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예요!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안한 거죠! 그러니깐 지역의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정보도 늦고 정보도 늦은데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그거를 3년, 4년을 지나서 그제야 받아들여요. 아 그때 그 사람이 얘기 했던 게 이제야 맞다 라고요. 그러면 늦어요!

행정 편의적이고 기존계획의 답습은 지역 색을 잃게 하고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이어 H-4는 이러한 배경에는 책임 회피하려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깔려 있음이 나타났다.

[H-4, 지역단체] 가장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가 문제예요. 중앙정부 감사에서 살아야 되고 그 감사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책임 회피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주민들은 주민당신들은 알지 못한다.'고 해버리죠. 또 위에서 봤을 때 이걸 누가 자문했고 누가 취재를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대학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기관을 끌어들여요. 그런 곳은 정부에서 인정해주잖아요. 감사했을 때 감사를 잘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거죠.

H-3, H-4는 실제 사업 초기 발언권을 가졌던 참여자가 바라본 공공의 문제점이었다면 H-7은 상설시장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인으로 30년 넘게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바라본 상황에서 사업과 결부되어 문제점, 특히 군수의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 리더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드러났다.

[H-7, 지역상인] 군민도 세금 잘 내고 해야 하지만 군수가 잘 해야 해요. 군수가 거지가 돼야 흥성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군수가 잘해야 흥성이 발전되죠. 어떤 군수가 됐던지 군수가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 사업이 잘되죠. 또 군수가 법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력도 내야죠. 컨트롤도 군수가 해야죠. 어디 가서 흥성 좀 밀어달라고 해야 사업비도 잘 따오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중략) 난 정치하는 사람들보면 좀 답답한 것이 발전시킨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백억 가진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발전시키는 것은 군수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지생활을 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배당받는 돈을 지원받는 그런 우선권을 군수나 도지사가 나서서 우선권을 따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에 대해서도 군수가 딱 정해서 고쳐주고 하는 거죠. 군수는 돈을 얻어다 놓고서 일을 처리하는 게 군수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군수는 박력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군수는 어느 정도 강패여야해요. 추진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투자도 잘 받고 국가에서 사업비도 받고 하려면 군수는 강패기질이 있어 야해요. 강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사자같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같이 보듬어 줄줄도 알아야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서 울 때는 진정으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되어야 사람들이 따르고 일도 잘된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군수의 리더십이라고 봐요.

- 참여적 과정

사업의 진행에 있어 대구와 전주는 참여적 과정이 돋보이고 있다. 공공과 지역주민 혹은 단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대구는 앞서 공공의 역할에서 본 내용에서처럼 D-4에서 공공과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가지고 협업을 하였으며 여기에 인근 개발하는 지역에서 기부채납과 지역개발자금이 투입되면서 가로 주변의 역사자산 보존과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었음이 나타난다. 사업뿐만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대학의 운영에서도 시민단체가 공공의 위탁을 통해 진행되어 왔고 서로 간의 노력이 인정되어지고 있음이 D-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D-4, 지역단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software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사업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물리적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콘텐츠는 저희가 잡으면 되니까요. (중략) 이해관계자들 기업, 주민, 행정 이 세 개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확실히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걸어가는 거죠. 대구사업도 항상 중요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참여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일이 많아요. 이상화고택도 기업이 리셋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막았죠. 대신 상화 고택 주변만 리셋하고 계선성당 주변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깐 펀드를 내라고 해서 30억을 지역에 낸 거죠. 상화 고택을 기증하고 그 옆의 땅도 기부채납하면서 사업도 진행이 되었죠. 중구청은 그런 부분에서 물리적 개선사업의 중요사업주체로 하고 저희는 콘텐츠를 하는 이 3자가 만나면서 빛이 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기부 채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비전도 안 나왔을 거예요. 거버넌스의 개념인거죠.

[D-1, 공공기관] 대구는 '민' 중에서도 YMCA, YWCA 같은 단체들이 일찍이 자리를 잡혀져 있었죠. 다른 도시랑은 다르게 이런 단체들이 우리(공공)가 하는 일에 참여도 하구요. 그 단체들이 도시대학에서 위탁, 수행하는 주체를 맡기도 하고 그랬지요. 시민대학운영이 사회단체에서 무료로 한건 아니었어요. 구청의 돈을 받고 실질적인 안내사업은 2년씩 교육받아서 진행했죠. (중략) 우리든 그 사람들이든(시민단체) 애 많이 썼죠. 조금씩 변하고 돈 되는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먹을 게 들어가야 그제야 주변이 보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잘살게 돼야 참여도 하고 신경도 쓰고요. 옛날에는 신경질 내고 확성기로 나가라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뭐 한다 그러면 서로 오라 그러는 분위기에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러한 공공과 지역 시민단체의 협력적인 구성과 노력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당시 일시적인 모임이긴 하였으나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들이 참여한 것이 D-6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종로에 위치한 화교협회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사업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매우 격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부정적이었다. 의견수렴 시 화교협회 회장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미루어보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명목적인 참여도 있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다.

[D-6, 지역상인] 여기 상가변영회가 있는데 상인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주민회의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참여 많이 했죠. (중략) 상가변영회에서는 주민의견수렴해서 반응을 시키게 해줬죠. 진행은 골목과 관련해서 지금은 상가변영회나 주민회의나 되는 것은 끝나서 따로 안 해요.

[D-5, 지역단체]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 주는 줄 알아요?! 우리한테 말도 안했어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한 거지 우리는 몰라요!

대구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사업발의와 참여, 그리고 공공과의 협업의 모습 속에 사업 당시 상가변영회를 중심으로 가로환경정비와 간판, 담장정비를 위한 상인·주민 참여가 이루어졌다. 일부 명목적 참여도 보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 진행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주에서도 한옥마을보존협의회와 전주시청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는 주민협의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설립된 주민협의회는 J-4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주민과 공공 간의 갈등에서 중재역할을 하였고 주민 설득 작업이 함께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주민의 의견을 피력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이 보여진다. 이러한 주민협의회의 활동은 태조로와 은행로가 개선되는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한옥마을의 성공적인 구성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J-4, 지역단체] 한옥마을을 관에다 다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과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시켜야한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이 한옥을 보존하자는 차원과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목적으로 한옥마을 보존협의회가 2008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이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중략) 우리 단체가 결성되고 호응해주고 서로 민관 3박자가 맞아 간 거죠. 그게 한옥마을이 이렇게 잘되고 한 것에 다 바탕이 된 거예요. (중략) 전주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침이 서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 주민들하고 견학을 많이 했고 공청회도 많이 열었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이 있었죠.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부족했지 않는게 싫어요. 주민은 우선당장 오늘만 생각했지 우리의 내일과 10년과 20년 100년 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었지 않는게 싫어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설득하고 밀어붙여서 주민들이 호응을 이끌어내도록 했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은 매수청구권을 하게해서 그분들 의사대로 반영을 하게 했죠. 이렇게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오게 됐죠. 개발해준다는 더 잘살게 만들어준다는데 협의회에서는 공공과 마찰할 일은 없었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적극찬성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개발을 해달라고 했지만 몇몇 극구 반대하고 시장실까지 가서 막 아주 강력하게 나서고 천막치고 검찰까지 가고 그런 일도 있긴 했죠. 그건 개발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해요. 지나고 보니 웃음이 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와서 왜 나갔는지 후회를 하고 그때 당시 내가 왜 그랬는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공적일지 몰랐던 거죠

이러한 참여한 내용과 주민참여가 사업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J-1, J-3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J-1, 공공기관] 도로를 바꾸고 하는 물리적 사업은 일단 행정에서 한거예요. 근데 계획 집행이나 도로폭 결정이나 이런 데에는 주민들이 결정에 다 참여했죠.

[J-3, 지역단체] 태조로 은행로 사업이 마찰이 있었는데 공청회 그런 거 통해서 그래도 잘 해결됐어요. 그렇게 막 마찰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요?(웃음) 협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래도 잘 해결된 편이에요. 공청회도 몇 번이나 열었었어요. 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깐 주민들의 의견은 설문조사나 전화가 아니라 대표자들만 모아서 했어요. 다 모아서 한 게 아니고 사건, 사건 해결해 나갈 때 대표자협회가 있데요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아니면... 막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하고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의도대로 많이 했데요. 어쨌거나 대표자협회를 하면 관에서 대표자들을 설득을 하고 대표자들이 다시 주민들을 설득하게 하도록 했데요. 방문이나 전화 이런 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다

하는 게 어렵잖아요? (중략) 그리고 중요한 일은 아직도 협의회에서 주체적으로 모아서 하니깐 상인회가 구지 없어도 될 거 같은데요?(웃음)

이러한 전주의 한옥마을보존협회의 활동과 전주시와의 협력적인 모습은 실제 김진석(2005), 송재복(2010), 기타 지역 언론 등의 연구와 보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협력적인 거버넌스 형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홍성은 전주와 같은 주민 협의체가 없으며 인근 상설시장의 번영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단체장이 사업초기 명목상 참여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참여가 일시를 정하여 모임을 가졌던 것이 아닌 개개인을 찾아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정도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H-9, 지역상인] 상인연합회에서 참여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서 우리는 끼지도 못했어요. 주민참여 말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참여했나 모르겠지만 여기 이 건물에서 몇 십 년을 산 난 그런 거 못 들었어요. 다들 그럴 거예요. 설령,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다했을지라도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동의하고 알았다하고 했을 거예요. 군에서 돌로 깔면 좋다하니깐, 다른데서 했다고 하니깐 좋나보다 하고 알았다고 했을 거예요.

[H-8, 지역상인] 주민참여 같은 거요? 전혀 안했어요. (중략)길을 어찌한다고 모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게 앞에서 군청직원이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들었죠.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개개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밖에 몰라요.

[H-5, 지역단체]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잘 생각나지도 않고 몇 번 모이지도 않았어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홍성에 오래 살았고 거기 일게 단체장이라서 한 것 같아요. 뭐 딱히 한일은 없어요. 몇 번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정도예요. 그래서 한 결과물은 간판정리하고 거리 가꾸기 정도 같네요. 사업 참여시키는 사업이 시작할 제일 초기예요. 초기에 모이고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는 모인 적이 없어요.

[H-3, 지역단체] 이 사업이 시작되려 할 때부터 참여를 했었고 여러 사람이 참여 했었어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싸우고 별 짓 다하면서 시정하려고 했었는데 안됐어요.

주민참여의 형식이 적든 많은 실제사용자의 요구와 필요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결과에서도 원성을 사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대로 대구와 전주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이란 긍정적 평가들이 지배적이고 그 내용 속에는 시민단체나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계획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원론상의 언급을 넘어 실제로 이루어져야하는 대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3) 사업 계획·시공의 질

전주는 계획 당시 양방향이던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보도의 폭과 함께 환경단체인 전주의제21의 자문을 받아 인공실개천을 만들었다. 한옥마을주민과 전주시청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계획 내용이 긍정적임을 볼 수 있었다. 또 가로조성사업이후 조성된 실개천을 활용하여 행사를 만들어 한옥마을을 알리는데 활용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다.

[U-4, 지역단체] 특이한 것이 실개천이에요. 전국 유일한 대중적인 시설이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시설이죠. 우리 전통한옥 700여 채랑 실개천이 어우러져서 남녀노소가 어울릴 수 있는 전통마을이 된 거죠. (중략) 실개천에다 물이 흐를 때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연꽃위에 유리잔을 놓고 선비들이 양가에 앉아서 주를 즐기는, 소리를 즐기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이걸 전국적인 큰 호응을 얻었었죠. 우리 한옥마을 발전계기가 되기도 했구요.

[U-1, 공공기관] 한옥마을에 실개천도 있잖아요. 그 지역 외 지역에서도 실개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실개천 있는데 까지만 한옥마을이니깐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U-4, 지역단체] 골목골목 정취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어디보다도 특이해서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전통담장을 살린 골목으로 형성을 해서 젊은이들이 더 호감을 갖고 찾게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죠. 가면 갈수록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략) 태조로나 은행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면서 길도 넓히고 담벼락도 보수하고 했죠. 2층까지 건물을 올리고 해서 음식점사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덕분에 그 분들의 소득 매상이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어꼬치, 초코파이 빵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루 매출이 일, 이천만원을 끌어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가로조성과 더불어 이루어진 담장보수와 간판정비 등의 내용에서도 한옥마을 전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로정비와 지구단위에서 층수에 대한 지정 등의 내용이 반드시 소득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홍성은 계획에 있어서 포장 재료의 선택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로 인해 불편함은 물론 소음공해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었다. 또 계획의 도로 폭원과 주차장이 부족함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 지나친 화단의 조성으로 공간만 차지하는 문제점 등 가로 조성 계획과 디자인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H-3, 지역단체] 시공하면서 알았어요. 포장된 돌이 이렇게 작은 돌을 갖다 돌을 박는 줄 몰랐어요. 서울이나 진주에서 포장한 돌은 좀 넓은 돌로 깔아서 걷기도 편하고 그런데 홍성에 포장할 돌도 그런 넓은 돌인 줄 알았죠. 근데 이런 돌을 포장한 거예요! 이 포장비가 아스콘 도로 포장하는 예산의 4배가 들어갔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던 거죠. 장○○교수가 유럽의 길 사진을 찍어온걸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는 '유럽이야기 하지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하자.'고 싸우고 했지만 끝내는 결국 밀리고 말았죠. (중략)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수하기도 용이하고 뭐 어찌고저찌고 막 장점을 밀어붙이면서 이걸로 꼭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좀 넓은 돌로 편하게 하자 했지만 교수의 학술 이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밀렸죠.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얼마나 지금 불편한지 몰라요. 이걸 보수하기도 어려워요. 여기 지하에 매설한 전기 같은 공사하려면 이걸 다 뜯어내고 해야 하고 또다시 깔고 이걸 반복하다보면 돌이 다 가라앉아 버려요. 막 물이 고이고 그럼 또 다시하고... 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중략) 남자들도 남

자들이지만, 여자 분들이 이 도로한번 지나가면서 구두 뒷굽이 다 까져버려요. 박혀서 안 빠지고 굽이 부러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도로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이라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 바꿔줘야 해요. 아마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6m에 도로가 거의 없어요. 가변차선 이런 것 때문에 좁은 도로가 8m도로예요. 근데 여긴 6m예요. 역사문화거리에 6m가 무슨 역사문화의 거리예요?! 그때 도시 과장하고 그 교수하고 다 밀착이 되가지고 말을 안 듣더라구요. 나머지 심의 의원들은 골치 아프니깐 그냥 뭐 가만히 있었죠.

[H-1, 공공기관] 저 길이 별로 안 좋아요. 도로 간격 별로 안 좋아요.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으면 박혀요. 유지보수도 힘들어요. 수리한다고 뜯었다 박았다하면 침하가 일어나요. 벌어지기도 하구요. 돌과 돌 사이에 틈에는 모래를 채우잖아요 이게 날이 지나면 지날 수록 모래가 날라 가서 구멍이 생겨요. 차들도 천천히 이동하면 상관없는데 2차선이다 보니 차가 빨리 달린단 말이에요. 주행성이라던가 소음도 문제가 되죠.

[H-11, 지역주민] 다닐 때 소음이 심해서 불편해요. 거기만 울퉁불퉁해요. 도로 깔려있어서 운전할 때 소음이 심해요. 거기를 다시 한 번 더 깐 걸로 알고 있어요. 재공사를 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처음보다 더 울퉁불퉁해지고 소음도 더 심해졌어요. 이걸 왜 해놨나 모르겠어요. 원래는 폭이 좁은 도로였는데 넓혀졌죠. 20(km/h) 안 밟아도 소음이 심해요.

[H-9, 지역상인] 인도 같으면 괜찮은데 차도라서 문제가 많아요. 천천히 가면 소리도 덜 나고 괜찮은데 빨리들 가다보니깐 소리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는데 속력을 너무 내서 시끄러워요. 주위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렸어요. 돌과 돌 사이에 모래가 다 있어서 먼지가 너무 나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공해도 일으켜요. 애초에 사업이 잘못됐다 할 수 있어요. 돌 하나가 3000-5000원 한데요. 하려면 인도를 좀 넓게 했어야 했죠.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먼지나지 정신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말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시끄럽고 먼지난다고. 다른 도로들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여긴 (과속방지)턱도 없어요.

[H-10, 지역상인] 우선 거리가 깔끔해지긴 했죠. 지중화사업해서 전신주도 없고 해서 깔끔해졌죠. 근데 화단을 만든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라고 해놓은 건 알겠지만 화단이 너무 커요. 공간을 너무 낭비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공간을 주차시설로 했으면 장사에 도움도 되고 좋았을 텐데 화단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문제도 있고 특히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문제가 되죠. 돌이 살짝 얼어버리면 얼음판처럼 되어서

미끄럽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공사를 완벽하게 딱 한 것이 아니라서 요철이 심해요. 차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불편해요. 특히 밤이 문제예요. 양쪽으로 차를 데어놓아서 밤에는 주차장 같아요. 밤에는 특히나 불편해요. 밤늦게까지 단속을 좀하면 좋겠어요. 여기 8시까지만 단속하거든요. 8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 아수라장이예요. 더 이상 사업 안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에 대한 언급은 대구와 전주의 경우 홍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었다. 가로 조성에 있어 환경개선과 기존 논의되는 원칙에서 보여지는 보행환경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반영된다 하였을 때 사람들이 다니기에 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자 이치일 것이라 가정하면 당연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언급이 안 된 것뿐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성공여부에 대한 생각에서 D-4의 응답처럼 성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색한 반응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반면 홍성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이 오히려 불편함과 소음, 먼지와 같은 공해를 일으키게 되자 신랄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언급의 내용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잘못된 계획과 실행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커짐이 보인다. 계획의 질이 가로환경개선에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 (4) 사업 후 운영방식

전주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작하면서 생겨난 주민자치단체인 한옥마을보존협회의 활동에 주목한다. 대구와 비슷하게 공공이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단체를 발족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한옥마을보존협회가 유지되면서 자발적인 거리 정화 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하고 있고 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을 만들어 시에 직접 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U-4, 지역단체] 우리는 청소 같은 것도 단체별로 보존협회에서 전체 모여서 할 때도 있지만 6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아침, 저녁에 자율청소를 하고 있고 자율방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요. 미화원분들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하고 있어요. 협의회에서 유인물을 만들고 해서 운동도 하고 있어요. 개인 집 앞은 개인들이 알아서 잘 청소하게끔 하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것도 알리고요. (중략) 장님도 만나고 해요. 얼마 전에도 시장님을 초청해서 최민문학관을 빌려서 3시간동안 대토론을 벌였어요. 한옥마을의 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왔으니 새로운 시장에게 바라는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지요. 52건으로 정리를 해서 보존협회에서 건의를 했죠. 주차문제가 심해서 1km정도 떨어진 곳에 만평짜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동시주차 1000대가 가능하게 하고 순환버스도 10대 다니게 하기로 했어요. 그게 건의사항 2번이었는데 해결이 된 거죠. (중략) 전체 700-800세대의 사람들 전체가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하고 있죠. (중략) 그 전제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할 수 있는 전통음식, 전통공예품, 전통 발효식품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개발/발전시켜서 전세대가 상업화를 하면 똑같이 동반자가 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유한 마을이 되지 않겠는가 해요. 그럼 우리가 명동 집값, 명동 땅값보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중략) 우리 한옥마을은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좀 가야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소득이 같이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한쪽에서는 배불러 터지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보존협회에서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죠.

나타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자발적인 움직임이 사업초기부터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바탕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개선방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에서는 역사문화의 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사화 한 H-6의 인터뷰에서 역사문화거리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대구와 전주에서 보여 지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되어지고 있다. 주민과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홍성에 물리적 사업으로 조성되어진 공간에 콘텐츠와 사람들에게 거리를 알리는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인터뷰를 하면서 홍성 내에 역사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질문 시 ‘작은 돌로 길 만든 곳’ 이라 했을 때 알아차렸다.

[H-6, 지역언론] 이 사업은 완전 하향적 사업이구요. 사업이 이미 끝났고요. 이제 사람들의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인식확대 및 이 거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 필요하고 고민해야할 때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위에서부터 어떻게 정부예산을 받아올까 하는 그러다보니 전혀 대상지로 맞지 않는 곳에 역사문화거리가 지정되고 한 문제가 생겼죠. (중략) 사업자체가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개념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자주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차도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리도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일부이고 살아야가야 할 공간이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 어떤 콘텐츠를 채우고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행복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조성된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 한옥마을보존협의회에서 사업초기부터 참여하고 사업 후 이어지는 개선작업은 이러한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과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때 지속성을 가지고 가로 또한 유지되는 것이다. 또 거리가 조성되고 산재된 역사자원을 알리기 위해 대구와 전주 모두 노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공통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역할이 컸음을 언급하는 부분에 있다. 이는 주민의 역사의식 고양과 지역 역사정보에 대한 진



달을 위한 움직임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D-2, 공공기관] 근대 골목이 뜨게 된 거에는 물론 뒤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특히 해설사 분들이 골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게 있죠. 투어객에 맞춰서 맞춤형 해설을 하죠. 무궁무진한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학생은 학생에 맞춰서, 특정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대구 근대골목 자체가 대구 선교 역사와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근대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갑오경장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부터잖아요. 그때가 선교사들이 많이 그럴 시절이거든요 근대의 모든 역사와 맞물려서 다양한 이야기가 생겼죠. 덕분에 아주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고 개신교 가톨릭과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시죠. 그래서 성공요인이 아마 해설사들을 아주 잘 양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해설사분들이 역사의식도 남다를 뿐만 아니라 열정이 대단하세요. 여수공무원 분들이 해설을 듣고 가신분이 나중에 메일을 보내와서 정말 대구를 새롭게 알고 간다고 하면서 한 가지 부럽고 자기 나름대로 아쉬운 것이 해설사의 열정에 너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정 있는 분이 자신들의 고장에 있었다면 좋지 않았겠냐며 여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것을 내놓을 때 대구의 열정 있는 해설사 같은 분들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정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성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구에 대한 애정이죠. 누가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물론 뒷받침 됐지만 해설사의 역할도 성공에 큰 영향을 줬다고 봐요.

[D-3, 공공기관] 여기 해설사분들 다니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저도 봉사자로 있지만 그분들은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요. 그러니 자원해서 그렇게 하시지. 여기 성공한 데는 그분들의 공도 커요. 그 사람들이 대구의 얼굴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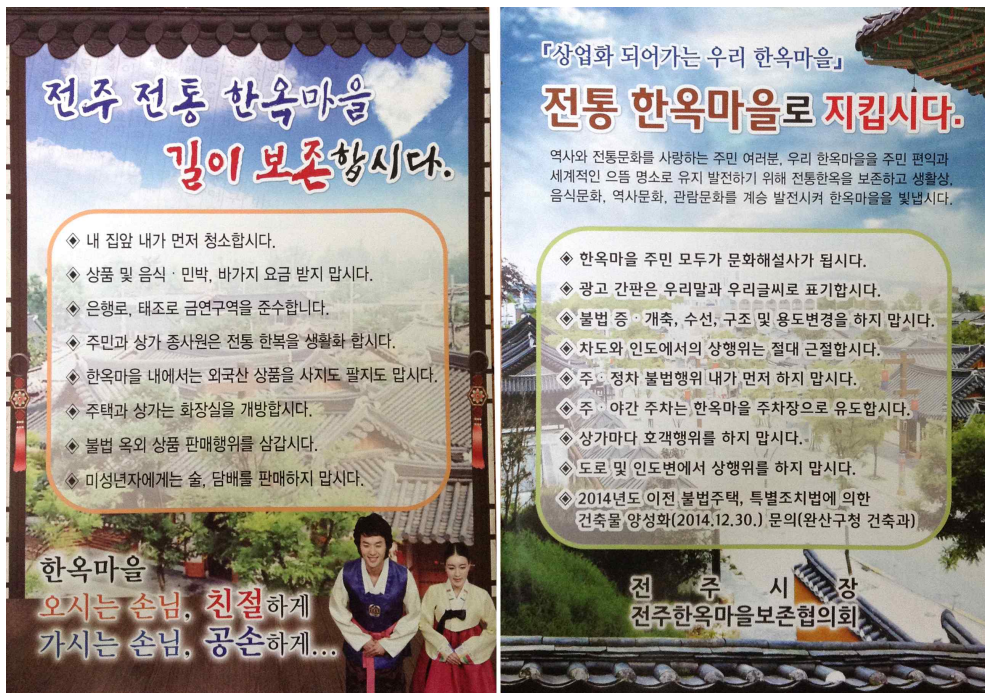
거리 D-2, D-3 모두 중구청 소속의 해설사, 관광 안내 센터 직원임을 감안할 때 자신의 역할을 부각해서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D-4의 인터뷰에서도 해설사가 틀에 짜인 형식이 아닌 도시 공간을 함께 향유하도록 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근대골목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주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해설사를 양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한옥마을보존협의회 내부에서 한옥마을주민에게 배포한 자료(그림 17참고)를 보면 주민 스스로 지역을 알리기 위한 해설사를 자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알리

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J-4, 지역단체] 문화해설사는 그렇게 자동으로 길러졌다 보면 되요. 주민이 다 해설사고 전주시민의 역사의식이 깊어요. 협의회에서 우리스스로가 해설사가 되자고 표어로 홍보도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시에 한 달간 교육시켜서 활동하는 해설사가 35명 있는데 많이 부족해요. 2-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요. 오늘 와서 오늘 듣질 못해요. 한옥마을도 그 나라 언어에 맞는 해설사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해설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옥마을을 더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요.

대구에 비해 전주의 양성된 해설사는 그 수가 아직 부족하지만 두 지역 모두 해설사의 활동이 지역을 알리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에서는 지역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에 스토리텔링과 지역시민에게 지역성과 애착을 고취하는 시민대학의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거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동으로 보인다.

그림 17 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 활동내용



### 제 3 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역사자산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의 성공요인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거론되어지는 역사도시로 나아가기위한 도시재생 혹은 가로를 위한 원칙과 방침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역사문화거리사업이 완료된 8개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을 지역과 언론과 각종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대구와 전주를 성공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 전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서 다수의 문제가 나타나는 흥성의 문제점과 실패내용을 분석의 틀을 통해 반대로 어떤 부분이 실패요인이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지역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요인을 밝히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업에 직접 참여한 8명을 포함하여 기타 지역주민, 상인, 공무원 등 총 26명이 인터뷰에 응하였다.

각 지방의 성격과 역사자원성, 사업추진에서 나타나는 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질적 내용, 마지막으로 사업 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 성공요인을 밝혔다. 표 33의 내용은 이러한 분석을 요약한 것으로 대구와 전주는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가로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다. 대구는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지역의 자원이 아카이브로 구축되고 공공과의 협업을 통해 물리적 사업과 거리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역사와 지역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주는 노후된 한옥 밀집 지역이 한옥 지구로 지정되고 ‘태조로·은행로’라는 중심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표 33 성공요인 분석 내용

성공요인	세부내용	
지방도시의 성격과 역사자원성	대구 - 풍부한 근대유산, 아카이브 구축, 지역의 내발성 성향 전주 - 지역이 가진 전통성의 유지, 한옥의 보존	
사업추진방식	공공의 역할	대구 - 주민을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할, 물리적 사업추진 전주 - 시장의 리더십, 시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적 과정	대구 -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시민대학참여 전주 - 자발적으로 발생된 한옥마을보존협의회의 활동과 역할
계획/시공의 질	전주 - 독특한 디자인,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길	
사업 후 운영방식	대구 - 해설사 양성운영 전주 - 해설사 양성운영(주민 스스로도 해설사 자처), 지속적인 한옥마을 유지를 위한 활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주시와 계획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사업을 이끌었다. 사업 후에도 해설사와 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흥성은 남아있던 역사적 건축물과 성곽이 과거 개발 논리에 의해 파괴되고 복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계획안, 공무원과 지역주민간의 소통 부재는 결국 통행의 불편과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실패된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장의 분석을 통해 먼저 지역이 가진 역사적 자원과 기존의 지역성은 자원을 단순한 보존을 넘어서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현시키는데 바탕이 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작업과 스토리텔링은 지역적 특성과 어우러져 가로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거리 투어와 같은 지역 관광에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사업의 질적 성과, 사업 후의 가로의 유지와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물리적이 가로 환경개선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루어지는 가로의 활용에서 해설사와 각종 프로그램이 가로의 유지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이끄는 주체에 지역의

커뮤니티가 참여할 때 그 시너지가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 아직까지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형식으로 지방 공공기관의 사업비 마련을 위한 노력과 집행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모습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장에서 얻은 결과를 참고하여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지방도시의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사업의 특성과 인터뷰를 통한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역사문화거리와 사업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사업 성공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과 같이 도심부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재생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도 오래된 건축물과 가로를 경제와 생활의 주요 공간이자 재생의 활용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서구의 도시와 같이 건축적 유산이 지배적이지 않고 점적으로 산재해 있다. 점적으로 산재되고 적은 수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지방도시에서는 가로를 중심으로 이들 자산을 통하여 특색을 가진 재생사업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적은 유형의 자산이라도 자원화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사업의 효과에 있어 유형적 자산과 무형적 자산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사업의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스토리와 역사는 사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들, 과거의 단순히 향수로 여겨왔던 것 등도 역사문화자원의 범역에 포함시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굴된 자원들은 사업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역의 인적자본의 활용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스토리를 이끌어 내고 발굴하여 이를 아카이브화 한 지역시민단체의 모습

은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즉, 지역의 시민단체, 향토사학회, 지역대학 등의 지역 인적자본이 잘 정리되어 역사문화 활용에 참여할 때 지역의 사업에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공역할의 중요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이 모두 하향적 사업형식을 취하면서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진다. 하향적 사업형식은 사업비의 마련과 이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등이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지며 지방도시의 자체적인 사업비 마련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계획의 중요성이다. 공공은 지역의 역사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을 잘 살리는 높은 수준의 계획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한다.

여섯째는 주민참여의 중요성이다. 일방적인 사업계획 및 집행과 형식적인 주민참여보다 주민의 지역 애착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과 지역단체 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애항심을 가지고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유도과 협력을 사업초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공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자원의 활용과 가로가 가진 연계기능을 통해 사람들이 유입되고 활성화되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결과가 반드시 경제적인 효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해도 지방도시의 가로에 대한 환경개선에는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지방도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특성과 추출된 요소들은 추후 역사문화를 활용한 거리조성사업에서 계획 및 디자인 등에 좋은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이 실제 어떤 과정과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밝혀낸 것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주체와 지역상인·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구 방법론에서 인터뷰를 통해 모든 참여주체자의 생각이 반영될 수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대해 전체의 객관화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성공지역의 선정에서 수상내력과 그 평가, 언론기사, 참여적인 내용을 통해 선정하려 하였으나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할 지역 분류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동진(1999), “근대역사환경 보전의 패러다임 모색”, 대한국토계획학회지 100(99.2): 127-143.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역사·문화 그리고 시민의 존중,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표」, auriM spring 2012 vol.07: 6.
- 계기석·김형진(2003), 「지방대도시 도심기능 활성화와 쾌적성제고방안」, 국토연구원
- 고평채(2011), 전주한옥마을 보전정비사업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상·조민선(2011), 「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한 역사문화가로경관 조성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동식(200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문화재 지정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일·이대준(2010), “구룡포 근대 일본인 가옥 지역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6권 제1호(통권 255호): 227-238.
- 김진석(2005),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지역개발의 사례”, 지역경제 제1권 제2호(통권 제2호): 220-228.
- 김현숙(2014), “탁류의 도시,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에서”,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vol.13 Spring 201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28-135.
- 김홍기(2004), “역사적 도심재생의 계획특성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지 20권 5호: 157-166.
- 나춘선·신지원·김기수(2012), “구)마산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 도출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8권 제1호(통권 제8집): 279-282.
- 대구경북연구원(2009),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 대구광역시.
- 대구중구관광두레(2010), 「도심디자인 POCKETBOOK」, 대구광역시 중구

- 도시재생사업단(2012),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야기: 세계의 역사·문화도시재생사례」, 한울아카데미
- 문화재청(2008), 「도시재생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
- 민현석(2009), 「옛길의 가치규명 및 옛길 가꾸기 기본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박구원(2010), 「구룡포 일본인 가옥과 역사적 테마가도에 대한 고찰」, 동북아관광연구 제 6권 제2호(통권11호): 125-141.
- 박정석(2012),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주어촌 방어진에 대한 기억과 그 흔적」, 민속학연구 제30호
- 박종서(2013), 대구 구도심 역사·문화적 재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희(2011),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모형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형철(2005), 독일과 영국의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역사, 문화적 보존수법을 통하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경(2012), 역사·문화적 도심재생에 있어서 이용자인식의 비교연구: 인사동과전주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재복(2010), “시차(time lag)에 따른 지방 거버넌스의 변화: 전주한옥마을조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제24권 제2호: 68-92.
- 심진범·김돈호(2002), 「인천시 구도심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 인천발전연구소.
- 안인향(2009), 서울시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정란·여옥경·장성화(2012),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비교연구: 전주시 및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제46권 제 3호: 321-332.
- 이상민(2008),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공공디자인”, 국토연구(통권321호): 19-28.
- 이상민·차주영·임유경(2007),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왕건·박태선·박정은·류태희·이유리(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이왕기·이현식·허소영(2002), 「구도심 역사문화자원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조사·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이지선·강신겸(2010), “커뮤니티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분석”, 관광연구논총 제22권 제2호(통권26).
- 이찬·임수현·강홍빈(2007), “삼청동 이미지 형성 있어서 갤러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발표자료.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2012). 인천의 문화지구를 통한 도시문화재생 제1차 문화정책포럼, 인천아트플랫폼 세미나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활성화 사례」 내부 보고자료.
- 진린·김혜정·김현수·김정훈(2004),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30.
- 최강림·이승환(2009),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사례연구 : 인천시 구도심 ‘인천아트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44권 제2호(통권169호): 221.
- 한국도시설계학회(2012), 「대구 원도심 역사문화경관구축 종합계획 보고서」, 대구광역시.
- 홍성균(2009),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성과」 내부보고문서.
- 홍인욱(2013),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울연구원.
- LH도시만들기지원센터(2010),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백서」, 국토해양부도시재생과.
- Carmona et al.(2010), *Public Places -Urban Spaces*, London: ArchitecturalPr
- Colin, B.(2007). UNESCO Activities on balanced urban revitalization between social cohesion and heritage conservation UNESCO International seminar
- Gary Paul Green, A. H.(2011), *Asset Build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United States: Sage.
- John P. Kretzmann, J. L. M.(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CTA Publications.
- Temali, M.(2007), *The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Handbook*: Fieldstone.

## <언론기사>

경남도민일보(2007.12.04.), 경남도민일보, 지역을 바꾸는 공공미술,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914>.

경북매일(2012.10.22), 대구 ‘근대화 골목’ 전국 수학여행지 ‘인기’,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400>

경북방송(2014.02.05), 구룡포의 자존심 향토사,

[http://pohangnews.co.kr/print\\_paper.cgi?action=print\\_paper&number=26637&title=%C7%C1%B8%B0%C6%AE](http://pohangnews.co.kr/print_paper.cgi?action=print_paper&number=26637&title=%C7%C1%B8%B0%C6%AE)

경향신문(2009.05.19), 역사인식 없는 ‘근대건축물 재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905190200265&code=920100&med=khan](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905190200265&code=920100&med=khan).

경향신문(2009.12.04.), 발길 닿는 곳마다 옛 자취 오롯이…근대 100년 역사

‘거대한 박물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40500065&code=96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40500065&code=960100)

나주투데이(2011.03.18), 사라져가는 영산포 근대거리-선창과 함께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http://www.na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5>.

뉴시스(2009.07.07.), 목포 원도심 ‘역사문화타운 조성’ 본격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62342>.

뉴시스(2009.12.16.), 군산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 ‘선배’,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1216\\_0003943758](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1216_0003943758).

뉴시스(2010.07.22), 2800억 규모 흥성지역종합개발사업 ‘물거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53897>.

뉴시스(2012.07.26), 군산 내항 전국 향만 재개발의 롤모델 부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30113>.

뉴시스(2013.09.26),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고증없이 엉터리 조성,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26\\_0012389045&cID=10810&pID=108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26_0012389045&cID=10810&pID=10800).

대전일보(2006.04.16), 홍성지역, 전봇대 사라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067420>.

동아일보(2013.08.27), 대구 중구 “골목투어가 경제활력 효자”,  
<http://news.donga.com/3/all/20130826/57240470/1>.

매일신문(2013.07.30), 골목투어, 어른들도 매료되다…일반인 참가자 작년의 2배,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7988&yy=2013#axzz3KYtTUOIP](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7988&yy=2013#axzz3KYtTUOIP)

매일신문(2014.03.08), 대구 ‘근대골목투어’ 최초 기획자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0984&yy=2014#axzz3Hz51oPKC](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0984&yy=2014#axzz3Hz51oPKC).

인천일보(2001.07.13), 인천시 ‘개항기 건축물 보존방안’ 윤곽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07>.

특급뉴스(2008.09.20.). 공주 국고개, 걷고 싶은 ‘명품 문화거리’로-공주 국고개,  
 걷고 싶은 ‘명품 문화거리’로,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5>

한국일보(2012.12.26), 2012 한국관광의 별 - 대구근대골목,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2/h2012122602305821950.htm>

홍성신문(2013.01.08), ‘홍성 역사 문화의 거리’ 찾습니다,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13>.

홍성신문(2013.08.30), 홍성 역사문화거리 누더기 상태 방치,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76>.

홍주일보(2013.08.08), 제 모습 잃은 역사문화의 거리,  
<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48>.

## <인터넷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1st.jsp](http://www.molit.go.kr/USR/NEWS/m_71/1st.jsp)

건축도시정책 정보센터, <http://www.aurum.re.kr/Bits/Building/>.

고석규, “목포 역사문화의 길” 구상 배경과 그 의미, <http://chohanlab.net/>.

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museum.gunsan.go.kr/content/sub03/03\\_06.jsp](http://museum.gunsan.go.kr/content/sub03/03_06.jsp).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종로 진골목 등 골목길 가로환경개선공사 준공,  
[http://gu.jung.daegu.kr/int/sub2\\_9.html?table=photo\\_2&case=read&page=1&num=53](http://gu.jung.daegu.kr/int/sub2_9.html?table=photo_2&case=read&page=1&num=53).

디지털공주문화대전, <http://gongju.grandculture.net/>.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중구청,  
[http://gu.jung.daegu.kr/chief/html/sub03\\_02\\_06\\_read.html?kind=5&gi=5&num=71](http://gu.jung.daegu.kr/chief/html/sub03_02_06_read.html?kind=5&gi=5&num=71).

도시연대, 근린재생이란 무엇인가?, <http://blog.naver.com/urbanaction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List.jsp](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List.jsp)

인천사랑, 인천역사문화의 거리, <http://loveincheon.kr/>.

인천투어, 인천역사문화의 거리, <http://itour.visitincheon.org/utourpia/culture>.

전주문화관광, <http://tour.jeonju.go.kr/board/>.

중구의 역사문화자산 활용 보고서,  
<http://www.mrw.co.kr/report/data/view.html?no=1166006>.

## Abstract

# A Study on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Regarding Historic-Cultural Street Construction Projects in Provincial Cities

Yoo, Hyer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means to vitalize declined, old downtown area, provincial cities are aggressively involved in employing regeneration strategies to utilize their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nationwide. This study selected historic and cultural street building projects in 18 provincial cities in Korea in order to draw the nationwide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of regeneration strategies using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are provincial cities in Korea with those in the West having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richly in their old downtown area to see how many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Korean provincial cities have and figure out the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In fact, lately, in urban regener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regional properties is being highlighted, and also, when promoting a regeneration project, it has been reported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capacity to plan and conduct it successfully, and it is desirable to take a bottom-up approach instead of a government-led top-down approach.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er is going to see if the projects to vitalize provincial cities to turn them into historic cities have been conducted correspondingly to the aspects and have gained positive results.

To attain the goal, this study performs two kinds of analyses around the projects that have been completed from 2014 until now. First of all, concerning the projects to build tangible and intangible historic streets of different regions, the researcher examined each of the cities or guns' project guidelines, internal reports, regional research reports, journals, and press reports, and so on to find out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utilized, project planning, the scale and arrangement of project funds, and also the subjects, forms,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Next, the researcher interviewed the local merchants and residents of successful regions (Daegu, Jeonju) and also a problematic region (Hongseong) as well as the subjects directly involved in those projects and then analyzed it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 resources of those provincial cities, modes of promoting the projects, the quality of planning/construction, and their operation after the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projects and also the interview, the study can present following implications:

Unlike in the West full of historic resources, in Korea, there are few properties that are dotted sporadically, and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conducted mainly around streets. This shows that those resources also have potentials and have been utilized for community development. Moreover, those regional resources may lead to bigger effects when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ones are combined and can work as factors that make a region's story richer. This seems to be a crucial factor because it influences how to show a region's identity.

In executing and promoting a project, the roles and participation of regional human resources and residents as well as the public sector appear to be important. Although the projects mostly take a top-down form; however, when a region's human resources are utilized in better arrangement, it is possible to gain positive effect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llect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directly for the planning and let them participate. The public sector should induce residents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and play its roles in raising project funds through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astly, it is uncertain that the project results did really influence the regional economy or vitalization, but it seems that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street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extracted from the previous projects to build historic and cultural streets in

provincial cities will be applied as a useful foundation for such things as planning and designing in the future projects to build streets using history and culture. Moreo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figured out the actual process and effect of historic and cultural street building projects and also drawn their success factors based on the voices of the local merchants and residents as well as the subjects involved in those projects.

- ◆ **Keyword :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regeneration, community asset utilization,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historic and cultural street**
- ◆ **Student Number : 2012-23798**